

OECD Health Statistics 2020



보건복지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afety

CONTENTS



건강상태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연령표준화 사망률
 - 3-1. 암
 - 3-2. 순환기계 질환
 - 3-3. 호흡기계 질환
 - 3-4. 치매
 - 3-5. 자살
4.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



건강 위험요인

5. 주류 소비량
6. 흡연율
7.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율



보건의료자원

8. 총 병원 병상 수
9. 급성기 병원 병상 수
10. 임상 의사 수
11. 임상 간호인력 수
12.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
13.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
14. 의학계열 졸업자 수



보건의료이용

15.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16. 국민 1인당 치과의사 외래 진료 횟수
17.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
18.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
19. 제왕절개 건수
20.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



보건의료비용

21.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22.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
23.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24.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의약품 시장

25. 의약품 소비량
26. 의약품 판매액



장기요양

27.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28.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이용자를 위하여

■ OECD Health Statistics 개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의 각종 보건의료 분야 통계를 수집하여 매년 6월말~7월초 통계 포털*을 통해 「OECD Health Statistics」를 발표함(20. 7. 1. 발표)

* <https://stats.oecd.org/Index.aspx?ThemeTreeid=9>,
OECD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

- 건강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비용 등 다양한 주제의 통계를 수록함
- OECD는 경제사회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 통계를 개발하고 필요도가 낮아진 통계는 삭제하면서 통계 지표를 관리함
- 최근 들어 다른 국제기구(WHO, EU 등)와 공동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데이터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통계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
-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 가입 이후 매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협조로 산출함(가나다 순)

■ 이용 시 유의점

- 이 책자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통계는 2018년을 기준 시점*으로 함

* 2018년 수치가 없는 국가는 과거 2개년까지 인접 정보로 대체

- 단,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국제기구 간 데이터 공유체계를 따르는 바, 2017년을 기준 시점으로 작성함

OECD Health Statistics 2020 요약표



분야	지표명	한국	OECD 평균	최대	최소		
건강 상태	1. 기대수명(년)	82.7	80.7	84.2	일본 [17]	74.9	라트비아
	2. 영아사망률(명/출생아 1,000명)	2.8	4.1	16.8	콜롬비아 [16]	1.6	에스토니아
	3-1.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2017년 기준)(명/인구 100,000명)	160.1	195.8	275.4	헝가리	117.5	멕시코
	3-2.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2017년 기준)(명/인구 100,000명)	142.1	274.2	646.9	라트비아 [15]	142.1	한국, 일본
	3-3.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2017년 기준)(명/인구 100,000명)	79.8	68.6	129.3	칠레	27.7	핀란드
	3-4.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2017년 기준)(명/인구 100,000명)	11.3	25.2	62.9	영국 [16]	0.6	터키[16]
	3-5.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2017년 기준)(명/인구 100,000명)	23.0	11.4	24.4	리투아니아	2.6	터키[16]
	4.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 15세 이상 인구	32.0	67.9	88.6	캐나다	32.0	한국
건강 위험요인	5. 주류 소비량(순수 알코올 리터, 15세 이상 인구 1인당)	8.5	8.8	12.6	라트비아	1.4	터키
	6. 흡연율(%), 15세 이상 인구	17.5	17.0	35.0	그리스 [17]	7.6	멕시코 [17]
보건 의료 자원	7.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율(%), 15세 이상 인구	34.3	60.3	75.2	멕시코	26.7	일본
	8. 총 병원 병상 수(개/인구 1,000명)	12.4	4.5	13.0	일본	1.0	멕시코
	9. 급성기 병원 병상 수(개/인구 1,000명)	7.1	3.6	7.8	일본	2.0	칠레
	10. 임상 의사 수(명/인구 1,000명)	2.4	3.5	5.2	오스트리아	2.2	콜롬비아
	11. 임상 간호인력 수(명/인구 1,000명)	7.2	8.9	17.7	노르웨이	1.3	콜롬비아
	12.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대/인구 1,000,000명)	38.6	27.4	111.5	일본 [17]	1.3	콜롬비아
	13.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대/인구 1,000,000명)	30.1	17.0	55.2	일본 [17]	0.2	콜롬비아
	14. 의학계열 졸업자 수(명/인구 100,000명)	7.5	13.9	28.7	벨기에	6.9	일본
보건 의료 이용	15.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회)	16.9	6.8	16.9	한국	1.9	콜롬비아 [17]
	16.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 진료 횟수(회)	1.5	1.2	3.2	일본 [17]	0.1	멕시코
	17.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일)	19.1	8.1	27.8	일본	3.8	멕시코
	18.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일)	7.5	6.5	16.1	일본	4.1	터키
	19. 제왕절개 건수(건/출생아 1,000명)	451.9	263.4	548.9	터키	148.5	이스라엘
보건 의료 비용	20.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건/인구 100,000명)	7.9	35.6	59.5	벨기에	4.4	멕시코
	21.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7.6	8.8	16.9	미국	4.2	터키
	22. 경상의료비 중 정부 의무가입제도 비중(%)	59.9	73.8	85.3	노르웨이	50.8	멕시코
	23.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32.5	20.1	41.4	멕시코	9.2	프랑스
	24.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US\$ PPP)	3,085.2	3,984.3	10,637.1	미국	1,144.9	멕시코
의약품 시장	26. 의약품 총 판매액(US\$ PPP/국민 1인당)	642.6	499.6	759.6	벨기에	91.3	멕시코
장기 요양	27.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개/65세 이상 인구 1,000명)	60.9	46.9	81.9	룩셈부르크	4.2	그리스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7. 7.)

주: 의약품 소비량(25)과 장기 요양 수급자 비율(28)은 지표의 비교 방식이 다른 통계들과 상이하여 요약표에 제시하지 않음

주요내용(요약)



이 책자는 OECD가 2020년 7월 1일 공표한 보건의료통계(Health Statistics 2020) 중 주요 지표를 추출하여, 업무상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주로 2018년 기준의 수치를 수록하고 있음

※ 관련 자료는 OECD 홈페이지(<http://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80.7년)보다 2.0년 긴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3년 증가하여, OECD 평균 증가 수준(0.7년)보다 높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84.2년)이고, 스위스(83.8년), 스페인(83.5년), 이탈리아(83.4년)가 그 뒤를 이음
 - 반면, 라트비아(74.9년), 멕시코(75.0년), 리투아니아(75.8년), 헝가리(76.2년)는 기대수명이 짧은 국가임
- 암에 의한 사망률(2017년)은 인구 10만 명당 160.1명으로 OECD 평균(195.8명)보다 35.7명 낮음
 -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암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117.5명),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275.4명)임
- 자살에 의한 사망률(2017년)은 인구 10만 명당 23.0명으로 OECD 평균(11.4명)보다 높음

- 다만,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6.1명 감소함(OECD 평균은 1.2명 감소)

-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를 집계한 흡연율은 17.5%로 OECD 평균(17.0%)을 상회함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4%p 감소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7.6%)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30.5%, 2017년)임
 - 성별에 따른 흡연율을 살펴보면, 여성(4.5%)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낮지만, 남성(30.5%)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음
- 병원의 전체 병상 수(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평균(4.5개)의 2.8배임
 - 총 병원 병상 수는 5년 전(2013년 10.9개)보다 1.5개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총 병원 병상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1.0개)이고,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13.0개)임
- 임상 의사 수(한 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음(OECD 평균 3.5명)
 - 임상 의사 수는 5년 전(2013년 2.2명)보다 0.2명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5.2명임

주요내용(요약)



- 임상 간호인력 수(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인구 1,000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8.9명)보다 1.7명 적음
 - 최근 5년간 임상 간호인력 수는 2.0명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임상 간호인력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7.7명)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콜롬비아(1.3명)임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6.9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음 (OECD 평균 6.8회)
 - 최근 5년간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2.3회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10회를 넘어가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헝가리 (10.7회), 슬로바키아(10.9회), 일본 (12.6회, 2017년)임
-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는 19.1일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길(OECD 평균 8.1일)
 - 최근 5년간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는 2.6일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 일수가 가장 긴 국가는 일본(27.8일)이고, 가장 짧은 국가는 멕시코(3.8일)임
- 한편, 입원환자가 급성기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머문 평균 기간(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은 7.5일로 OECD 평균(6.5일)보다 길지만, 최근 5년 동안 1.4일 감소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 일수가 가장 긴 국가는 일본(16.1일)이고, 가장 짧은 국가는 호주(4.1일, 2017년)와 터키(4.1일)임
-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와 의약품 총 판매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3,085.2 US\$ PPP로 OECD 평균(3,984.3 US\$ PPP)보다 낮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음(최근 5년 동안 956.4 US\$ PPP 증가)
 - 국민 1인당 의약품 총 판매액은 642.6 US\$ PPP로 OECD 평균(499.6 US\$ PPP)보다 높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음(최근 5년 동안 127.9 US\$ PPP 증가)
-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32.5%)은 OECD 평균(20.1%)보다 높지만, 점차 감소하고 있음 (2008년 37.1% → 2013년 34.2% → 2018년 32.5%)
-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상과 침상(병원의 병상과 시설의 침상을 모두 집계)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60.9개로 OECD 평균(46.9개)보다 많음
 - 최근 5년간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수는 5.7개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수 가장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81.9개)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그리스 (4.2개)임



OECD Health Statistics 2020

제1장

건강상태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연령표준화 사망률
 - 3-1. 암
 - 3-2. 순환기계 질환
 - 3-3. 호흡기계 질환
 - 3-4. 치매
 - 3-5. 자살
4.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

I

건강상태

1. 기대수명

-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 기대수명(80.7년) 보다 2.0년 긴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3년 증가하여, OECD 평균 증가(0.7년) 수준보다 높음
-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84.2년)이고, 가장 짧은 국가는 라트비아(74.9년)임
- 최근 수십 년 동안 OECD 모든 회원국의 기대수명은 상당히 증가함
 - 기대수명 증가의 배경 요인으로는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생활수준과 생활양식 및 교육수준의 향상,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와 의약품의 효율성 개선 등이 있음

〈표 1〉 기대수명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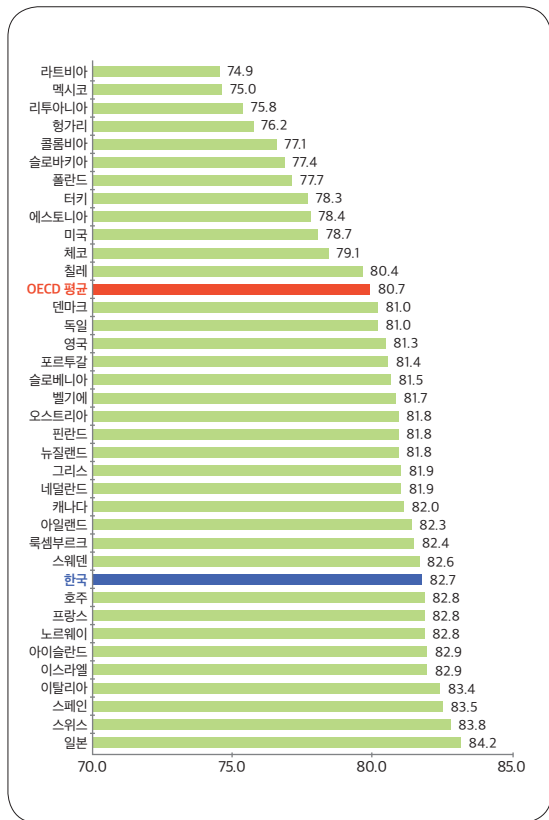
	2013			2018		
	전체 ¹⁾	남자	여자	전체 ¹⁾	남자	여자
호주	82.2	80.1	84.3	82.8	80.7	84.9
오스트리아	81.2	78.6	83.8	81.8	79.4	84.1
벨기에	80.7	78.1	83.2	81.7	79.4	83.9
캐나다	81.7	79.6	83.8	82.0	79.9	84.1
칠레	79.4	76.6	82.3	80.4	77.7	83.2
콜롬비아	76.1	73.2	79.0	77.1	74.3	79.9
체코	78.3	75.2	81.3	79.1	76.2	82.0
덴마크	80.4	78.3	82.4	81.0	79.1	82.9
에스토니아	77.3	72.8	81.7	78.4	74.0	82.7
핀란드	81.1	78.0	84.1	81.8	79.1	84.5
프랑스	82.3	79.0	85.6	82.8	79.7	85.9
독일	80.6	78.1	83.0	81.0	78.6	83.3
그리스	81.4	78.7	84.0	81.9	79.3	84.4
헝가리	75.7	72.2	79.1	76.2	72.7	79.6
아이슬란드	82.1	80.5	83.7	82.9	81.3	84.5
아일랜드	81.0	78.9	83.1	82.3	80.5	84.1
이스라엘	82.1	80.3	83.9	82.9	80.9	84.8
이탈리아	82.8	80.3	85.2	83.4	81.2	85.6
일본	83.4	80.2	86.6	84.2	81.1	87.3 (2017)
한국	81.4	78.1	84.6	82.7	79.7	85.7
라트비아	74.1	69.3	78.9	74.9	70.1	79.7
리투아니아	74.1	68.5	79.6	75.8	70.9	80.7
룩셈부르크	81.9	79.8	83.9	82.4	80.1	84.6
멕시코	74.6	71.7	77.4	75.0	72.2	77.9
네덜란드	81.4	79.5	83.2	81.9	80.3	83.4
뉴질랜드	81.4	79.5	83.2	81.8	80.0	83.5
노르웨이	81.8	79.8	83.8	82.8	81.1	84.5
폴란드	77.1	73.0	81.2	77.7	73.7	81.7
포르투갈	80.8	77.6	84.0	81.4	78.3	84.5
슬로바키아	76.5	72.9	80.1	77.4	73.9	80.8
슬로베니아	80.4	77.2	83.6	81.5	78.5	84.4
스페인	83.2	80.2	86.1	83.5	80.7	86.3
스웨덴	82.0	80.2	83.8	82.6	80.9	84.3
스위스	82.9	80.7	85.0	83.8	81.9	85.7
터키	78.0	75.3	80.7	78.3	75.6	81.0
영국	81.1	79.2	82.9	81.3	79.5	83.1
미국	78.8	76.4	81.2	78.7	76.2	81.2
평균²⁾	80.0	77.2	82.8	80.7	78.1	83.4

주) 1. 전체는 남자와 여자의 평균임

2.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과 2018년 모두 37개국의 평균임

[그림 1-1] 기대수명(전체),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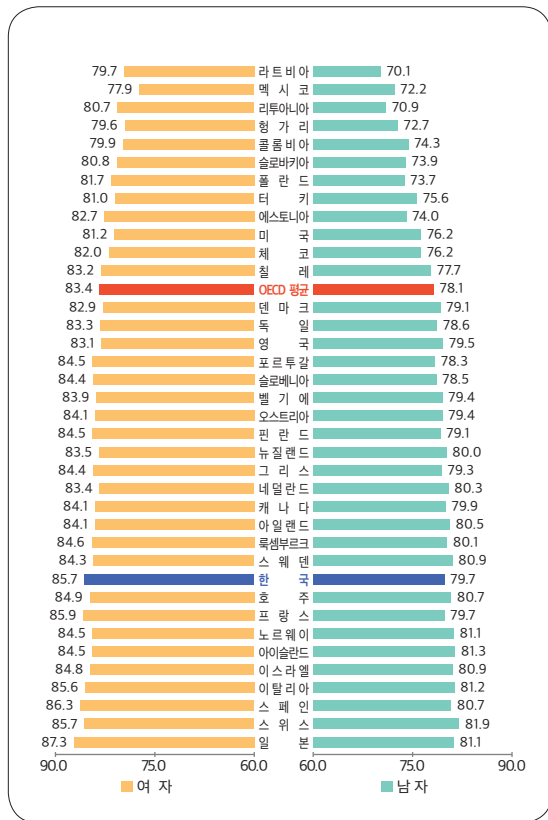
(단위: 년)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7개국의 평균임
2. 일본은 2017년 수치임

[그림 1-2] 성별 기대수명, 2018년

(단위: 년)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7개국의 평균임
2. 일본은 2017년 수치임

2. 영아사망률

■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8명으로 OECD평균 (4.1명)보다 낮음

- 최근 5년간 0.2명(2013년: 3.0명 → 2018년: 2.8명) 줄어 들었으며, OECD 평균은 0.3명(2013년: 4.4명 → 2018년: 4.1명) 줄어듦

■ OECD 회원국의 영아사망률은 콜롬비아(16.8명, 2016년), 멕시코 (12.9명)를 제외하고 출생아 1,000명당 10.0명 미만으로 나타남

- OECD 회원국 37개 중에서 13개 국가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0명 미만임
- 특히, 스웨덴, 일본,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는 영아사망률이 1,000명당 2.0명 이하임

〈표 2〉 영아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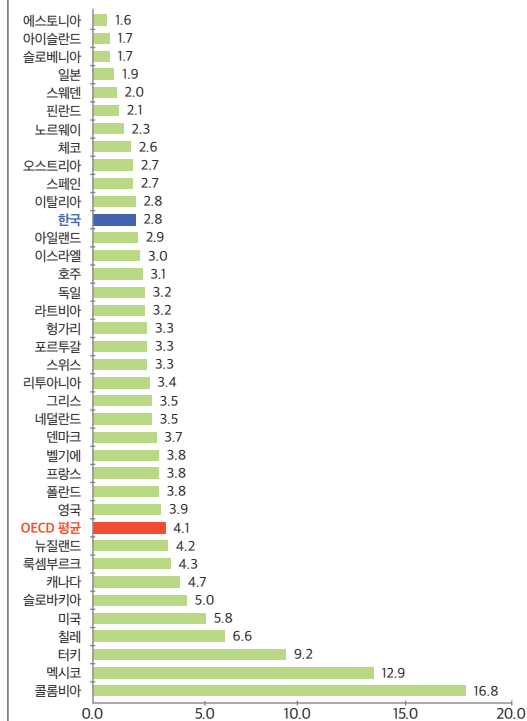
(단위: 명/출생아 1,000명)

	2013	2018
호주	3.6	3.1
오스트리아	3.1	2.7
벨기에	3.5	3.8
캐나다	5.0	4.7
칠레	7.0	6.6
콜롬비아	17.2	16.8 (2016)
체코	2.5	2.6
덴마크	3.5	3.7
에스토니아	2.1	1.6
핀란드	1.8	2.1
프랑스	3.6	3.8
독일	3.3	3.2
그리스	3.7	3.5
헝가리	5.0	3.3
아이슬란드	1.8	1.7
아일랜드	3.6	2.9
이스라엘	3.1	3.0
이탈리아	2.9	2.8
일본	2.1	1.9
한국	3.0	2.8
라트비아	4.4	3.2
리투아니아	3.7	3.4
룩셈부르크	3.9	4.3
멕시코	14.4	12.9
네덜란드	3.8	3.5
뉴질랜드	5.0	4.2 (2016)
노르웨이	2.4	2.3
폴란드	4.6	3.8
포르투갈	2.9	3.3
슬로바키아	5.5	5.0
슬로베니아	2.9	1.7
스페인	2.7	2.7
스웨덴	2.7	2.0
스위스	3.9	3.3
터키	10.1	9.2
영국	3.9	3.9
미국	6.0	5.8 (2017)
평균 ¹⁾	4.4	4.1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과 2018년 모두 37개국의 평균임

[그림 2-1] 영아사망률,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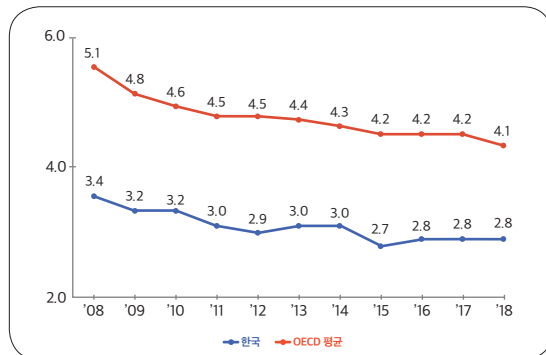
(단위: 명/출생아 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정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7개국의 평균임
2. 콜롬비아, 뉴질랜드는 2016년, 미국은 2017년 수치임

[그림 2-2] 연도별 영아사망률, 2008~2018년

(단위: 명/출생아 1,000명)



주) 1. 2008년과 2012년~2016년 OECD 평균은 해당 연도 통계가 있는 37개국의 평균이며, 2009년~2011년 OECD 평균은 터키를 제외한 당해 연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2017, 2018년 OECD 평균은 2017, 2018년(혹은 인정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7개국의 평균임

3. 연령표준화 사망률

* 2018년 사망률 정보를 질병별로 제공한 국가는 3개에 불과하여, 질병별 사망률은 2017년을 기준(혹은 인접 과거년도)으로 비교

■ 국가 간 또는 시계열에 의하여 생기는 연령구조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OECD 표준 인구구조로 표준화하여 산출한 사망률

■ 측정 산식

$$\text{연령표준화 사망률} = \frac{\sum(\text{연령별 사망률} \times \text{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text{표준인구}}$$

3-1. 암

-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0.1명으로 OECD 평균(195.8명)보다 낮음
- 2012년 183.3명에서 2017년 160.1명으로 23.2명 감소함(OECD 평균 10.8명 감소)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3.9명이고, 여성의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06.0명으로 OECD 평균(남성 255.6명, 여성 155.8명)보다 낮음
 -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암 사망률의 차이는 2.3배로 터키와 함께 남녀 암 사망률의 차이가 가장 큼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보다 높음

〈표 3-1〉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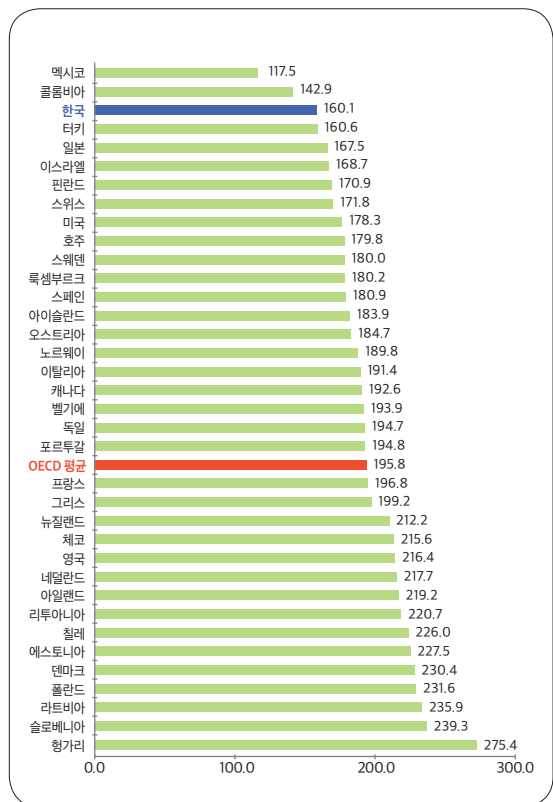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2			2017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93.1	245.1	153.4	179.8	223.8	144.6
오스트리아	201.9	259.4	164.0	184.7	235.6	148.9
벨기에	207.0	276.0	158.8	193.9	252.9	151.3 (2016)
캐나다	205.6	246.9	176.0	192.6	229.2	165.8
칠레	201.8	250.6	169.6	226.0	290.6	186.4
콜롬비아	150.4	175.1	133.4	142.9	162.3	128.7
체코	236.6	313.8	184.7	215.6	287.5	166.7
덴마크	246.1	293.3	214.4	230.4	276.0	198.9 (2015)
에스토니아	233.3	367.6	168.3	227.5	353.0	166.0
핀란드	176.5	225.9	145.1	170.9	216.3	140.5
프랑스	201.2	278.3	145.4	196.8	265.8	146.4 (2016)
독일	201.6	255.7	162.8	194.7	243.6	159.6
그리스	198.2	272.6	138.8	199.2	268.2	144.0 (2016)
헝가리	293.3	407.4	220.6	275.4	374.6	213.3
아이슬란드	202.7	232.5	180.1	183.9	207.3	166.5
아일랜드	228.7	279.1	193.0	219.2	266.2	185.8 (2015)
이스라엘	183.8	215.1	160.7	168.7	196.6	148.4
이탈리아	205.4	276.9	156.0	191.4	251.9	148.3 (2016)
일본	181.1	258.2	127.2	167.5	234.0	120.2
한국	183.3	288.4	117.7	160.1	243.9	106.0
라트비아	244.7	385.4	176.1	235.9	354.1	178.1 (2015)
리투아니아	226.5	352.9	159.0	220.7	339.1	157.9
룩셈부르크	205.5	260.2	167.2	180.2	236.0	138.5 (2016)
멕시코	120.2	135.8	109.6	117.5	129.9	108.0
네덜란드	235.0	297.4	193.3	217.7	270.1	181.1
뉴질랜드	209.9	249.8	179.9	212.2	251.0	182.9 (2015)
노르웨이	204.2	254.7	171.3	189.8	229.8	162.7 (2016)
폴란드	240.6	335.8	181.4	231.6	317.1	178.5
포르투갈	196.7	282.6	136.2	194.8	280.0	134.1
슬로바키아	254.7	365.7	185.9	-	-	-
슬로베니아	242.3	341.9	181.3	239.3	326.9	183.1
스페인	194.1	281.5	129.2	180.9	254.7	125.3
스웨덴	188.3	224.1	164.6	180.0	209.5	159.9
스위스	177.7	229.9	142.5	171.8	217.9	140.0 (2016)
터키	155.5	228.3	99.1	160.6	236.0	102.3 (2016)
영국	225.8	273.5	192.5	216.4	259.5	184.7 (2016)
미국	192.5	232.9	163.4	178.3	210.8	153.9
평균¹⁾	206.6	274.3	162.2	195.8	255.6	155.8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7개국, 2017년 36개국의 평균임

〈그림 3-1〉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7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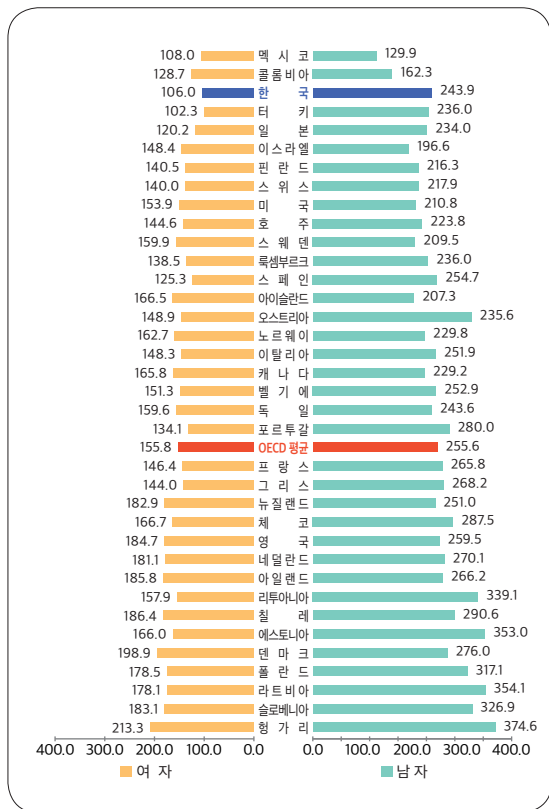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덴마크, 아일랜드, 라트비아, 뉴질랜드는 2015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영국은 2016년 수치임

[그림 3-2] 성별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7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덴마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뉴질랜드는 2015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영국은 2016년 수치임

3-2. 순환기계 질환

-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2.1명으로 OECD 평균(274.2명)보다 낮음
- 2012년 179.1명에서 2017년 142.1명으로 37.0명 감소함 (OECD 평균 34.5명 감소)
-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가장 높은 국가(라트비아 646.9명, 2015년)와 가장 낮은 국가(한국, 일본 142.1명)는 4.6배가량 차이를 보임

〈표 3-2〉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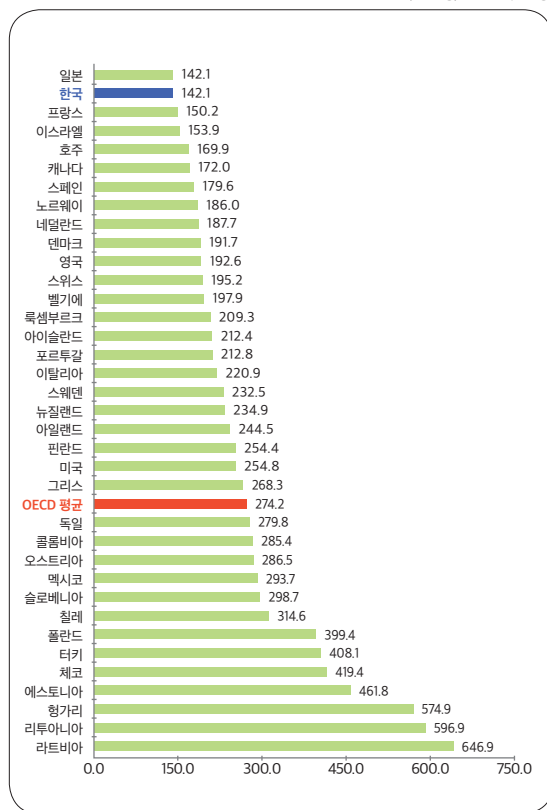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2			2017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98.0	228.5	170.8	169.9	195.9	146.4
오스트리아	322.5	372.1	283.2	286.5	325.7	252.8
벨기에	228.4	275.3	192.5	197.9	236.3	167.3 (2016)
캐나다	182.8	223.9	148.6	172.0	211.0	139.4
칠레	240.8	291.0	201.3	314.6	357.2	280.4
콜롬비아	324.7	386.7	277.8	285.4	332.3	248.1
체코	504.7	604.2	431.1	419.4	501.2	356.3
덴마크	212.2	259.9	175.0	191.7	233.8	157.8 (2015)
에스토니아	542.5	716.6	436.5	461.8	593.3	377.3
핀란드	305.6	393.6	240.3	254.4	329.8	196.0
프랑스	164.4	209.5	131.8	150.2	189.9	120.5 (2016)
독일	308.6	349.6	269.5	279.8	327.4	239.3
그리스	337.4	378.4	298.3	268.3	307.3	232.0 (2016)
헝가리	603.4	736.9	513.2	574.9	704.1	484.2
아이슬란드	227.6	260.1	199.5	212.4	253.2	174.2
아일랜드	267.8	325.0	220.8	244.5	295.4	201.1 (2015)
이스라엘	176.6	205.2	153.0	153.9	188.7	126.6
이탈리아	255.0	302.4	219.3	220.9	260.3	190.1 (2016)
일본	165.5	209.8	130.7	142.1	180.5	110.7
한국	179.1	214.7	154.1	142.1	166.9	121.8
라트비아	685.2	909.8	551.7	646.9	834.8	528.0 (2015)
리투아니아	665.7	860.8	540.2	596.9	773.1	486.1
룩셈부르크	237.5	281.0	200.2	209.3	248.7	178.0 (2016)
멕시코	273.8	312.6	241.5	293.7	330.0	261.9
네덜란드	213.2	255.6	180.6	187.7	219.3	161.8
뉴질랜드	250.7	286.2	217.4	234.9	266.3	206.5 (2015)
노르웨이	232.1	277.0	194.7	186.0	219.9	157.6 (2016)
폴란드	483.3	608.1	394.6	399.4	493.4	330.3
포르투갈	242.0	280.3	212.6	212.8	255.0	180.4
슬로바키아	534.2	637.8	459.4	-	-	-
슬로베니아	328.3	373.6	291.8	298.7	347.2	259.4
스페인	204.3	241.1	173.3	179.6	214.5	150.0
스웨덴	277.0	336.1	230.6	232.5	279.7	193.9
스위스	222.3	267.2	188.2	195.2	232.0	166.8 (2016)
터키	348.6	394.4	310.3	408.1	467.4	360.3 (2016)
영국	218.1	263.1	181.2	192.6	235.7	156.2 (2016)
미국	258.3	312.2	214.9	254.8	306.1	211.4
평균¹⁾	308.7	374.1	260.3	274.2	330.9	230.9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7개국, 2017년 36개국의 평균임

〈그림 3-3〉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7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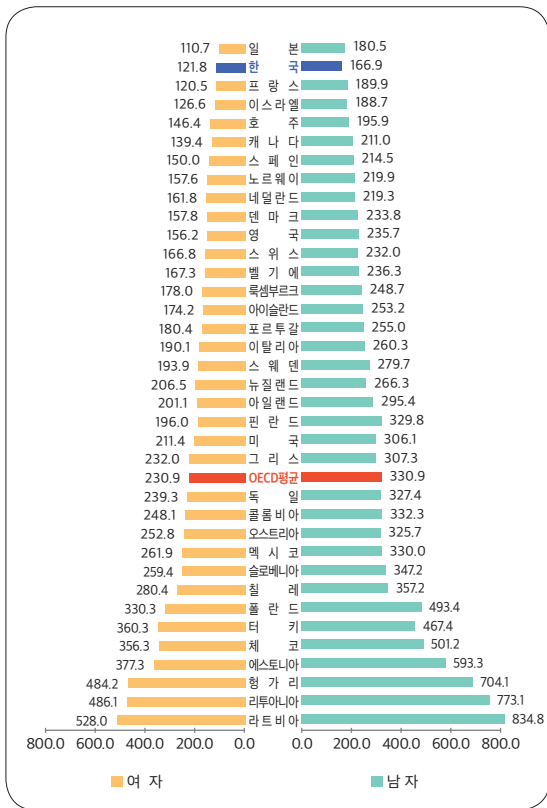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덴마크, 아일랜드, 라트비아, 뉴질랜드는 2015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영국은 2016년 수치임

[그림 3-4] 성별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7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3-3. 호흡기계 질환

-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9.8명으로 OECD 평균(68.6명)보다 높음
- 2012년 75.3명에서 2017년 79.8명으로 4.5명 증가함 (OECD 평균 1.5명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27.7명)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129.3명)임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호흡기계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7.0명이고, 여성의 호흡기계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55.1명으로 OECD 평균(남성 90.1명, 여성 54.9명)보다 높음
 -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호흡기계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차이는 2.3배임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보다 높음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덴마크, 아일랜드, 라트비아, 뉴질랜드는 2015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영국은 2016년 수치임

〈표 3-3〉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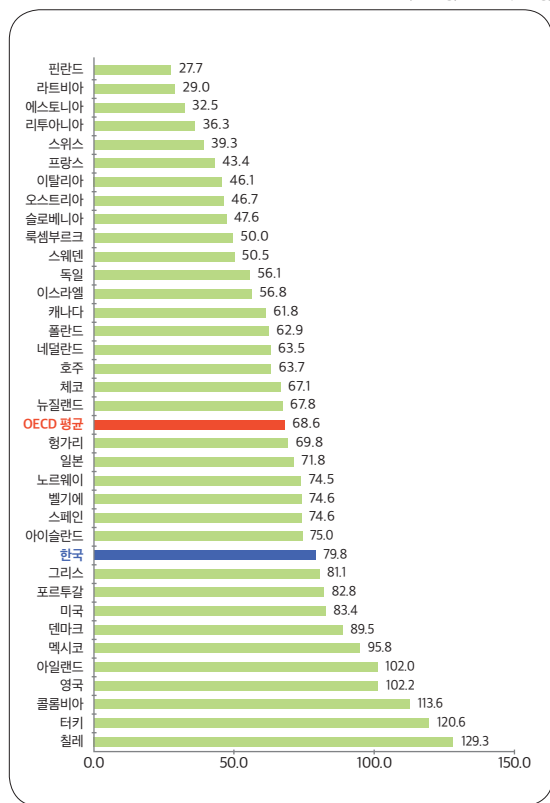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2			2017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60.1	75.2	49.7	63.7	75.2	55.0
오스트리아	38.3	54.9	28.2	46.7	60.6	37.3
벨기에	82.3	115.3	61.9	74.6	103.1	56.0 (2016)
캐나다	61.0	77.2	50.3	61.8	73.7	53.5
칠레	93.1	115.3	78.3	129.3	154.4	112.9
콜롬비아	114.5	140.6	95.6	113.6	130.1	100.8
체코	54.4	78.2	39.7	67.1	93.7	49.5
덴마크	92.6	108.7	83.4	89.5	106.5	78.6 (2015)
에스토니아	29.1	58.8	13.4	32.5	60.1	18.9
핀란드	30.3	49.4	19.0	27.7	42.4	18.2
프랑스	44.0	61.9	32.8	43.4	59.5	32.9 (2016)
독일	53.4	73.9	40.0	56.1	74.5	43.6
그리스	76.1	92.2	64.1	81.1	95.7	69.6 (2016)
헝가리	62.0	94.9	43.9	69.8	99.6	52.1
아이슬란드	52.9	45.5	58.9	75.0	76.8	72.4
아일랜드	100.4	123.5	85.5	102.0	123.6	88.0 (2015)
이스라엘	58.3	71.6	48.4	56.8	71.6	45.8
이탈리아	47.9	72.0	33.7	46.1	67.1	33.2 (2016)
일본	91.2	145.4	59.5	71.8	116.3	44.6
한국	75.3	122.1	52.4	79.8	127.0	55.1
라트비아	30.0	60.3	14.0	29.0	58.2	14.3 (2015)
리투아니아	36.0	72.9	16.8	36.3	70.5	18.5
룩셈부르크	54.5	69.2	45.1	50.0	64.0	40.7 (2016)
멕시코	89.7	113.8	71.9	95.8	112.2	82.4
네덜란드	80.6	110.2	64.0	63.5	77.8	54.6
뉴질랜드	68.4	80.2	60.6	67.8	77.4	60.8 (2015)
노르웨이	77.2	95.9	65.9	74.5	89.5	64.9 (2016)
폴란드	54.2	87.7	35.6	62.9	94.6	44.5
포르투갈	102.1	140.1	78.7	82.8	115.7	62.5
슬로바키아	67.1	106.0	45.3	-	-	-
슬로베니아	60.9	93.5	45.8	47.6	69.3	36.4
스페인	78.4	117.3	53.1	74.6	107.8	52.3
스웨덴	49.6	60.0	43.3	50.5	58.3	45.7
스위스	40.5	56.6	30.8	39.3	53.8	29.9 (2016)
터키	88.5	128.9	61.2	120.6	167.7	88.4 (2016)
영국	107.1	127.9	93.1	102.2	120.6	89.0 (2016)
미국	82.2	97.3	72.1	83.4	95.0	75.1
평균¹⁾	67.1	91.7	52.3	68.6	90.1	54.9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7개국, 2017년 36개국의 평균임

〈그림 3-5〉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7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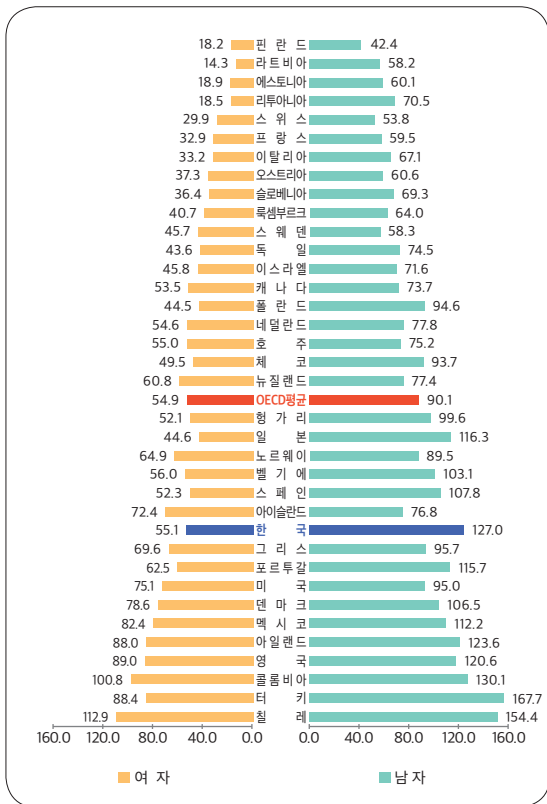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덴마크, 아일랜드, 라트비아, 뉴질랜드는 2015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영국은 2016년 수치임

[그림 3-6] 성별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7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이전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덴마크, 아일랜드, 라트비아, 뉴질랜드는 2015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영국은 2016년 수치임

3-4. 치매

-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3명으로 OECD 평균(25.2명)보다 낮음
- 2012년 17.4명에서 2017년 11.3명으로 6.1명 감소함 (OECD 평균 4.8명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0.6명)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62.9명)임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체코, 핀란드, 일본, 룩셈부르크(2016년), 포르투갈, 터키(2016년)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보다 높음

〈표 3-4〉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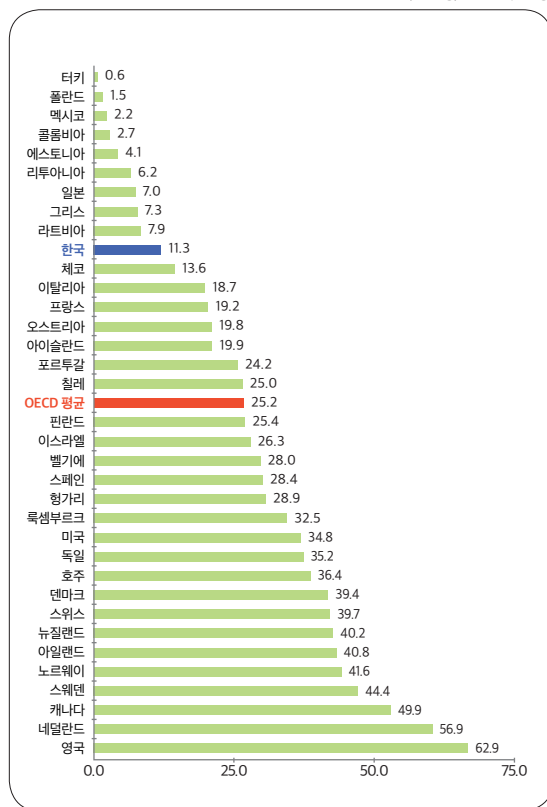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2			2017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32.7	29.0	34.6	36.4	32.8	38.5
오스트리아	5.1	4.8	5.1	19.8	16.2	21.4
벨기에	26.9	25.6	27.2	28.0	26.2	28.7 (2016)
캐나다	36.3	33.2	37.6	49.9	47.5	50.9
칠레	22.1	19.2	23.4	25.0	23.9	25.5
콜롬비아	0.8	0.8	0.8	2.7	2.5	2.7
체코	7.6	7.8	7.4	13.6	14.0	13.2
덴마크	36.3	32.1	38.2	39.4	36.4	40.7 (2015)
에스토니아	1.9	2.7	1.5	4.1	4.0	4.0
핀란드	29.1	26.2	29.7	25.4	25.2	24.9
프랑스	17.0	17.3	16.7	19.2	18.9	19.1 (2016)
독일	21.0	18.4	21.8	35.2	31.6	36.6
그리스	0.6	0.5	0.7	7.3	5.7	8.4 (2016)
헝가리	23.5	22.7	23.7	28.9	27.6	29.2
아이슬란드	17.0	19.6	15.5	19.9	18.0	21.4
아일랜드	27.8	27.4	27.7	40.8	37.8	42.3 (2015)
이스라엘	19.6	16.6	21.4	26.3	23.0	28.2
이탈리아	16.7	14.8	17.4	18.7	16.9	19.4 (2016)
일본	3.8	3.2	4.0	7.0	7.3	6.6
한국	17.4	16.6	17.5	11.3	10.6	11.3
라트비아	5.4	5.0	5.4	7.9	5.3	8.5 (2015)
리투아니아	1.6	1.7	1.5	6.2	5.2	6.4
룩셈부르크	27.2	24.2	28.4	32.5	34.9	31.8 (2016)
멕시코	2.6	2.6	2.6	2.2	2.0	2.2
네덜란드	45.5	36.3	49.8	56.9	50.5	60.1
뉴질랜드	30.4	25.8	32.6	40.2	36.5	42.2 (2015)
노르웨이	33.8	28.2	36.5	41.6	35.6	44.7 (2016)
폴란드	0.3	0.3	0.3	1.5	1.4	1.5
포르투갈	0.0	0.1	0.0	24.2	25.0	23.5
슬로바키아	20.0	19.9	19.9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26.2	24.1	26.9	28.4	26.4	29.1
스웨덴	41.5	35.4	44.5	44.4	39.8	46.6
스위스	40.9	36.4	42.8	39.7	34.9	42.0 (2016)
터키	0.8	0.9	0.7	0.6	0.6	0.5 (2016)
영국	51.5	44.8	54.7	62.9	56.1	66.5 (2016)
미국	44.0	38.5	46.8	34.8	29.9	37.6
평균¹⁾	20.4	18.4	21.3	25.2	23.1	26.2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6개국, 2017년 35개국의 평균임

〔그림 3-7〕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7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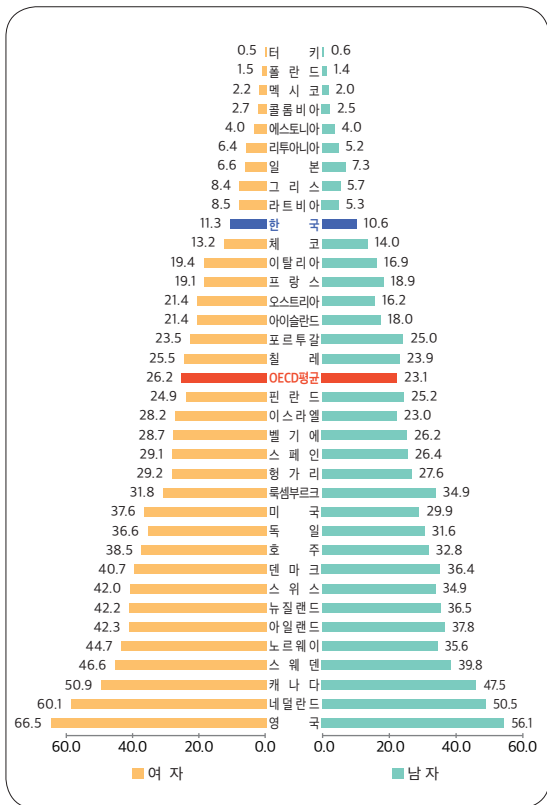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5개국의 평균임

2. 덴마크, 아일랜드, 라트비아, 뉴질랜드는 2015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영국은 2016년 수치임

[그림 3-8] 성별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7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5개국의 평균임

2. 덴마크, 아일랜드, 라트비아, 뉴질랜드는 2015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영국은 2016년 수치임

3-5. 자살

-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3.0명으로 OECD 평균(11.4명)보다 높음
- 2012년 29.1명에서 2017년 23.0명으로 6.1명 감소함 (OECD 평균 1.2명 감소)
 - 200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계속하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29.0	33.8	33.5	33.3	29.1	28.7	26.7	25.8	24.6	23.0
남성	41.9	48.3	49.6	50.0	43.2	43.3	40.1	39.5	37.4	35.1
여성	19.4	22.8	21.4	20.2	17.8	16.8	15.4	14.7	14.1	12.8

-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2.6명)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24.4명)임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5.1명이고, 여성의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2.8명으로 OECD 평균(남성 18.4명, 여성 5.2명)보다 높음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보다 높음

〈표 3-5〉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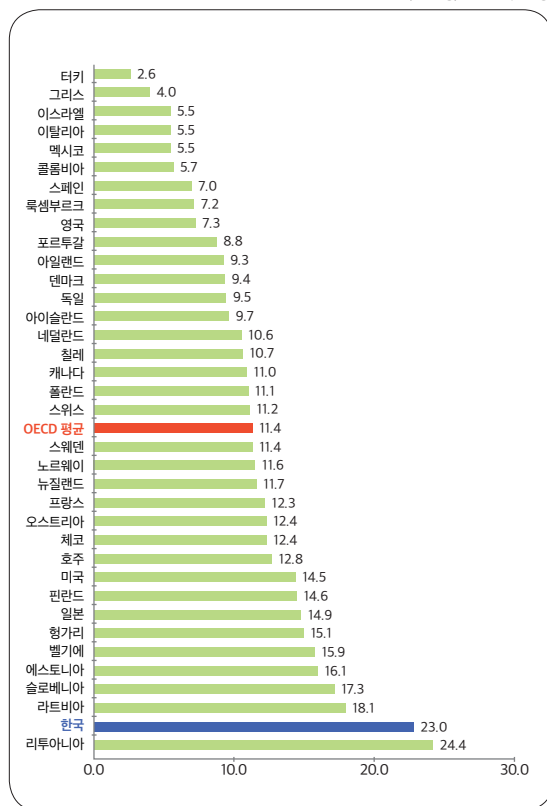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2			2017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1.4	17.4	5.7	12.8	19.5	6.3
오스트리아	13.7	23.1	5.7	12.4	20.9	5.0
벨기에	17.4	26.7	9.0	15.9	23.6	8.8 (2016)
캐나다	10.8	16.6	5.2	11.0	16.6	5.5
칠레	11.0	19.0	3.7	10.7	18.8	3.4
콜롬비아	4.8	8.6	1.5	5.7	9.9	1.9
체코	14.7	26.0	4.7	12.4	20.8	5.0
덴마크	11.3	17.5	5.4	9.4	13.4	5.6 (2015)
에스토니아	16.6	30.7	5.3	16.1	27.5	6.8
핀란드	15.6	24.2	7.6	14.6	22.0	7.5
프랑스	14.6	23.6	6.8	12.3	20.2	5.5 (2016)
독일	10.5	16.4	5.2	9.5	15.3	4.4
그리스	4.2	7.1	1.5	4.0	7.0	1.4 (2016)
헝가리	22.0	38.0	9.1	15.1	26.1	6.5
아이슬란드	11.6	16.6	7.0	9.7	17.7	1.3
아일랜드	12.1	20.2	4.2	9.3	15.0	3.9 (2015)
이스라엘	6.4	10.9	2.3	5.5	8.8	2.5
이탈리아	6.3	10.5	2.6	5.5	9.2	2.2 (2016)
일본	19.1	27.8	10.8	14.9	21.7	8.4
한국	29.1	43.2	17.8	23.0	35.1	12.8
라트비아	20.5	38.9	5.6	18.1	33.0	6.3 (2015)
리투아니아	29.5	53.9	9.4	24.4	43.9	8.5
룩셈부르크	9.4	14.8	4.3	7.2	11.0	3.5 (2016)
멕시코	4.9	8.3	1.7	5.5	9.6	1.9
네덜란드	10.0	14.0	6.3	10.6	14.7	6.6
뉴질랜드	12.5	18.8	6.4	11.7	17.7	6.2 (2015)
노르웨이	10.2	14.7	5.8	11.6	15.8	7.4 (2016)
폴란드	15.8	29.0	3.8	11.1	20.1	2.8
포르투갈	9.0	16.0	3.2	8.8	14.4	4.2
슬로바키아	10.2	19.1	2.4	-	-	-
슬로베니아	19.3	34.2	6.8	17.3	29.9	6.6
스페인	6.9	11.2	3.1	7.0	10.9	3.6
스웨덴	11.6	16.8	6.8	11.4	16.2	6.7
스위스	12.0	18.4	6.4	11.2	17.3	5.6 (2016)
터키	2.1	3.3	1.1	2.6	4.1	1.1 (2016)
영국	6.9	11.2	2.8	7.3	11.4	3.3 (2016)
미국	13.0	21.2	5.5	14.5	23.2	6.4
평균¹⁾	12.6	20.8	5.5	11.4	18.4	5.2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7개국, 2017년 36개국의 평균임

[그림 3-9]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7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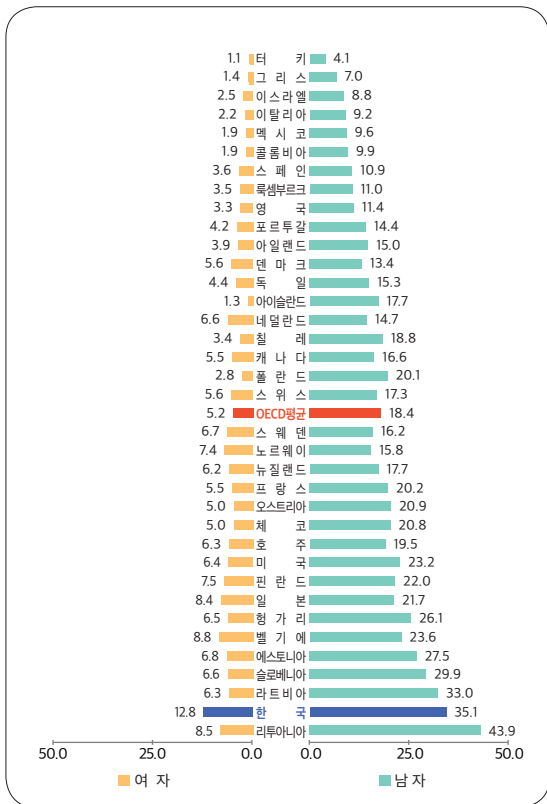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덴마크, 아일랜드, 라트비아, 뉴질랜드는 2015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영국은 2016년 수치임

[그림 3-10] 성별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7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덴마크, 아일랜드, 라트비아, 뉴질랜드는 2015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영국은 2016년 수치임

4.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

-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좋음, 매우 좋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0%로 OECD 평균(67.9%)보다 낮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32.0%), 일본(35.5%, 2016년), 리투아니아(44.0%), 라트비아(46.9%), 포르투갈(49.3%)은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 낮은 반면, 캐나다(88.6%), 미국(87.9%), 뉴질랜드(87.5%)는 높음
- 주관적 건강상태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34.5%이고, 여성은 29.4%로 OECD 평균(남성 70.3%, 여성 65.8%)보다 낮음
 - 호주,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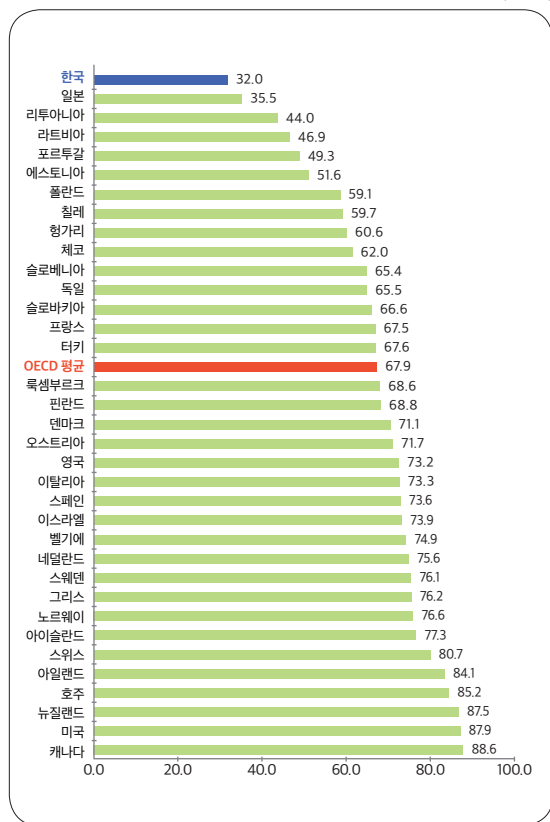
(단위: %)

	2013			2018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85.4	85.4	85.4 (2011)	85.2	84.8	85.6 (2017)
오스트리아	68.6	70.5	66.7	71.7	73.2	70.3
벨기에	74.3	77.0	71.8	74.9	77.3	72.5
캐나다	88.7	88.8	88.5	88.6	89.1	88.2
칠레	64.5	68.3	61.1	59.7	64.1	56.0 (2017)
콜롬비아	-	-	-	-	-	-
체코	59.6	62.2	57.6	62.0	64.0	60.7
덴마크	72.5	75.0	70.1	71.1	74.4	67.9
에스토니아	53.4	56.8	51.1	51.6	54.2	49.7
핀란드	64.6	65.4	63.9	68.8	70.5	67.1
프랑스	67.1	70.3	64.1	67.5	69.7	65.5
독일	64.9	67.0	62.9	65.5	66.7	64.3
그리스	73.9	76.9	71.1	76.2	78.4	74.2
헝가리	56.1	60.3	52.3	60.6	64.1	57.5
아이슬란드	76.6	79.2	74.0	77.3	79.4	75.0 (2017)
아일랜드	82.0	83.1	80.9	84.1	83.9	84.4
이스라엘	80.0	82.0	78.0	73.9	74.9	73.0
이탈리아	66.2	70.1	62.7	73.3	76.3	70.5
일본	35.4	37.1	33.8	35.5	37.0	34.1 (2016)
한국	35.1	38.8	31.5	32.0	34.5	29.4
라트비아	45.2	50.3	41.2	46.9	52.0	42.9
리투아니아	46.1	52.4	41.8	44.0	48.9	41.1
룩셈부르크	71.9	73.9	69.8	68.6	70.8	66.4
멕시코	-	-	-	-	-	-
네덜란드	75.6	79.7	71.6	75.6	78.2	73.1
뉴질랜드	89.5	89.3	89.7	87.5	88.1	87.0
노르웨이	76.0	77.2	74.7	76.6	78.8	74.3
폴란드	58.3	62.3	54.8	59.1	61.8	56.8
포르투갈	46.1	51.4	41.4	49.3	54.5	44.7
슬로바키아	65.9	70.9	61.4	66.6	70.6	62.8
슬로베니아	64.8	67.8	61.8	65.4	69.2	61.6
스페인	71.6	75.2	68.2	73.6	76.6	70.7
스웨덴	79.8	82.4	77.2	76.1	78.4	73.6
스위스	80.7	83.1	78.4	80.7	82.7	78.6
터키	67.8	72.5	63.2	67.6	72.1	63.2
영국	73.7	73.5	73.8	73.2	74.0	72.4
미국	87.5	88.4	86.7	87.9	88.4	87.4
평균¹⁾	67.7	70.4	65.2	67.9	70.3	65.8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과 2018년 모두 35개국의 평균임

[그림 4-1]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전체), 201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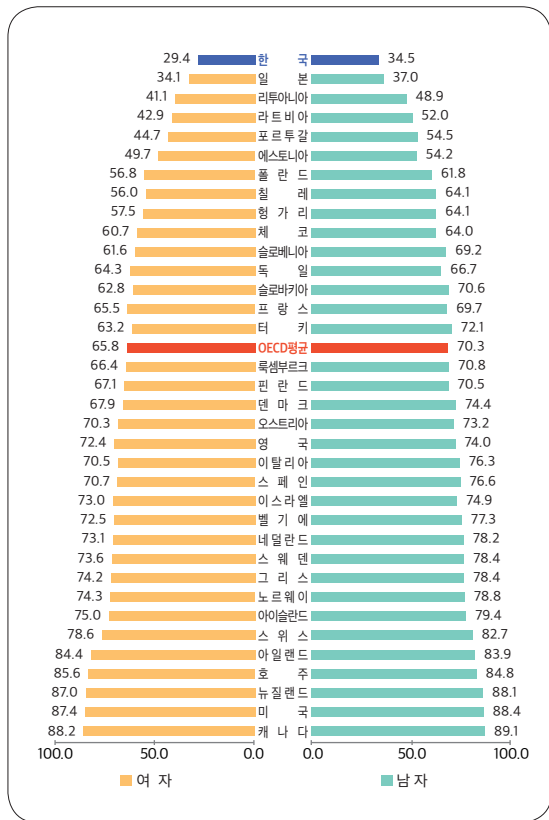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5개국의 평균임

2. 일본은 2016년, 호주, 칠레, 아이슬란드는 2017년 수치임

[그림 4-2] 성별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2018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5개국의 평균임

2. 일본은 2016년, 호주, 칠레, 아이슬란드는 2017년 수치임



OECD Health Statistics 2020

제3장

건강 위험요인

5. 주류 소비량

6. 흡연율

7.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율

II

건강 위험요인

5. 주류 소비량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8.5리터로 OECD 평균(8.8리터) 보다 적었음
 - 순수 알코올은 맥주는 4~5%, 포도주는 11~16%, 독주는 40%의 알코올로 환산함
- 주류 소비량은 2013년 8.7리터에서 2018년 8.5리터로 0.2리터 감소함(OECD 평균 0.1리터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이 가장 적은 국가는 터키(1.4리터)이고, 가장 많은 국가는 라트비아(12.6리터)임
 - OECD 회원국 37개 중 15개 국가에서 연간 1인당 10리터 이상의 주류를 소비하고 있음

〈표 5〉 주류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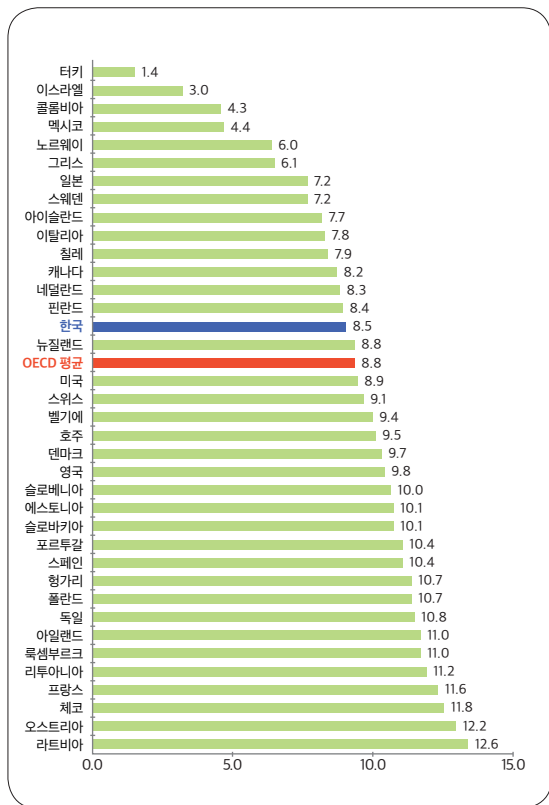
(단위: 순수 알코올 리터)

	2013	2018
호주	9.9	9.5 (2017)
오스트리아	12.4	12.2
벨기에	10.3	9.4
캐나다	8.2	8.2
칠레	7.2	7.9 (2016)
콜롬비아	4.3	4.3
체코	11.5	11.8
덴마크	9.4	9.7
에스토니아	11.9	10.1
핀란드	9.1	8.4
프랑스	11.6	11.6
독일	11.1	10.8
그리스	7.4	6.1
헝가리	10.6	10.7 (2017)
아이슬란드	6.8	7.7
아일랜드	10.6	11.0
이스라엘	2.9	3.0
이탈리아	7.3	7.8
일본	7.4	7.2
한국	8.7	8.5
라트비아	10.4	12.6
리투아니아	14.5	11.2
룩셈부르크	11.4	11.0
멕시코	3.9	4.4 (2016)
네덜란드	8.7	8.3
뉴질랜드	9.2	8.8
노르웨이	6.2	6.0
폴란드	10.8	10.7
포르투갈	9.5	10.4
슬로바키아	9.9	10.1
슬로베니아	9.5	10.0
스페인	9.2	10.4
스웨덴	7.3	7.2
스위스	9.8	9.1
터키	1.4	1.4
영국	9.4	9.8
미국	8.8	8.9 (2017)
평균¹⁾	8.9	8.8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과 2018년 모두 37개국의 평균임

[그림 5-1] 주류 소비량,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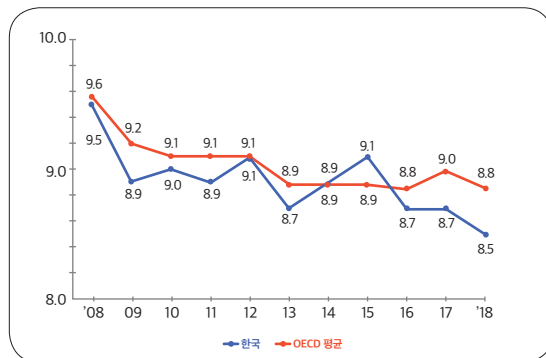
(단위: 순수 알코올 리터)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7개국의 평균임
2. 칠레, 멕시코는 2016년, 호주, 헝가리, 미국은 2017년 수치임

[그림 5-2] 연도별 주류소비량, 2008~2018년

(단위: 순수 알코올 리터)



주) 1. 2008~2016년 OECD 평균은 해당 연도 통계가 있는 37개국의 평균이며, 2017년 OECD 평균은 칠레, 멕시코를 제외한 당해 연도 통계가 있는 35개국의 평균임
2. 2018년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7개국의 평균임

6. 흡연율

-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비율 (흡연율)은 17.5%로 OECD 평균(17.0%)보다 높음
- 흡연율은 2013년 19.9%에서 2018년 17.5%로 2.4%p 감소함(OECD 평균 0.5%p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 (7.6%, 2017년)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35.0%, 2017년)임
- 성별에 따른 흡연율을 살펴보면, 여성 흡연율은 4.5%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낮지만, 남성은 30.5%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음(OECD 평균 여성 13.7%, 남성 20.6%)

〈표 6〉 흡연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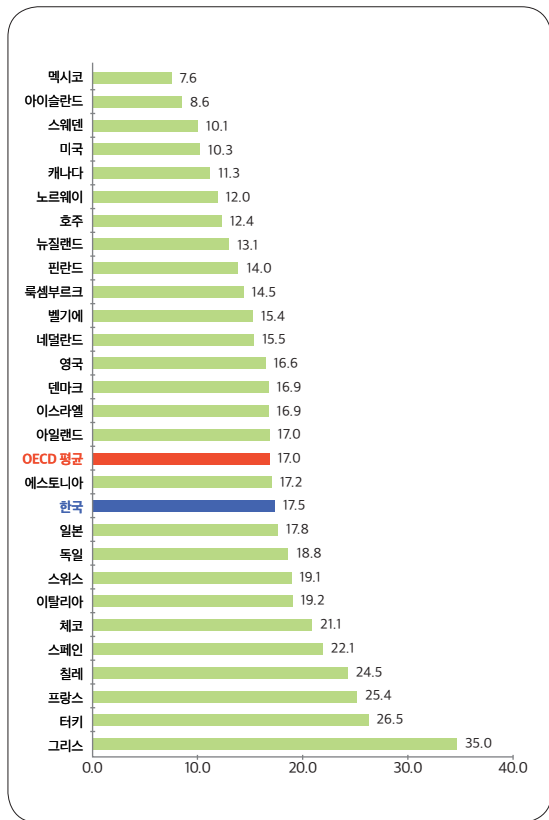
	2013			2018		
	전체 ¹⁾	남자	여자	전체 ¹⁾	남자	여자
호주	13.0	14.7	11.3	12.4	14.0	10.8 (2016)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18.9	21.6	16.4	15.4	18.9	12.1
캐나다	14.9	16.9	12.9	11.3	12.8	9.7
칠레	-	-	-	24.5	28.2	20.9 (2016)
콜롬비아	13.0	18.8	7.4	-	-	-
체코	22.2	27.2	17.4	21.1	24.5	17.9
덴마크	17.0	18.6	15.5	16.9	18.5	15.4 (2017)
에스토니아	26.0	36.2	18.3 (2012)	17.2	23.4	12.9
핀란드	15.8	19.1	13.2	14.0	15.0	13.0
프랑스	-	-	-	25.4	28.2	22.9
독일	20.9	25.1	17.1	18.8	22.3	15.3 (2017)
그리스	-	-	-	35.0	41.0	32.0 (2017)
헝가리	-	-	-	-	-	-
아이슬란드	11.4	10.7	12.1	8.6	8.1	9.1
아일랜드	-	-	-	17.0	19.0	15.0
이스라엘	16.2	21.9	10.8	16.9	21.3	12.8 (2017)
이탈리아	21.1	26.7	15.9	19.2	23.5	15.1
일본	19.3	32.2	8.2	17.8	29.0	8.1
한국	19.9	36.2	4.3	17.5	30.5	4.5
라트비아	-	-	-	-	-	-
리투아니아	-	-	-	-	-	-
룩셈부르크	15.7	17.6	13.9	14.5	15.7	13.4
멕시코	11.8	15.5	5.5 (2012)	7.6	12.0	3.6 (2017)
네덜란드	18.5	20.9	16.3	15.5	17.8	13.4
뉴질랜드	15.6	16.2	15.1	13.1	14.3	11.9
노르웨이	15.0	15.0	14.0	12.0	12.0	11.0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	-	-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23.9	27.9	20.2 (2011)	22.1	25.6	18.8 (2017)
스웨덴	10.7	9.8	11.7	10.1	11.0	9.2
스위스	20.4	23.1	17.8 (2012)	19.1	21.5	16.8 (2017)
터키	23.8	37.3	10.7 (2012)	26.5	40.1	13.3 (2016)
영국	19.0	22.0	17.0	16.6	17.0	16.2
미국	13.7	15.6	11.9	10.3	11.5	9.1
평균 ²⁾	17.5	21.9	13.4	17.0	20.6	13.7

주) 1. 멕시코는 2013년의 경우 전체 수치는 인접 과거년도인 2012년, 성별은 2011년 수치를 제시함

2.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은 25개국, 2018년은 28개국의 평균임

[그림 6-1] 흡연율(전체),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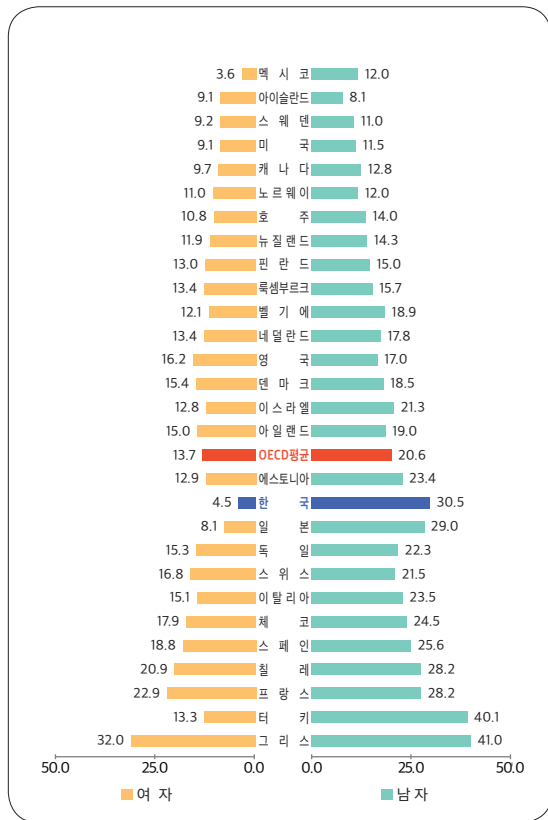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28개국의 평균임
2. 호주, 칠레, 터키는 2016년, 덴마크,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는 2017년 수치임

[그림 6-2] 성별 흡연율, 2018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28개국의 평균임
2. 호주, 칠레, 터키는 2016년, 덴마크,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는 2017년 수치임

7.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을

- 키와 몸무게의 측정에 의해서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판명된 15세 이상 국민은 34.3%로 OECD 평균(60.3%)보다 낮음
- 과체중 또는 비만율은 2013년 31.5%에서 2018년 34.3%로 2.8%p 증가함(OECD 평균 3.8%p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과체중 또는 비만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26.7%)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75.2%)임
- 과체중 또는 비만율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41.1%, 여성 27.4%로 남녀 모두 OECD 평균(남성 63.6%, 여성 57.0%)보다 낮음

〈표 7〉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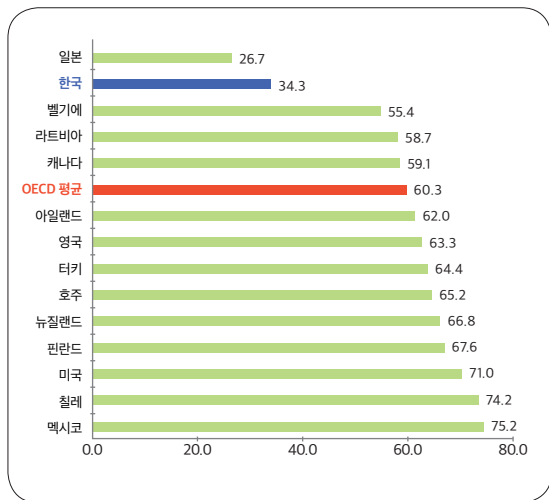
(단위: %)

	2013			2018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63.4	70.3	56.2	65.2	72.4	58.3 (2017)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	-	-	55.4	59.3	51.7
캐나다	60.3	68.0	52.6	59.1	63.7	54.4 (2017)
칠레	-	-	-	74.2	73.6	74.9 (2016)
콜롬비아	-	-	-	-	-	-
체코	-	-	-	-	-	-
덴마크	-	-	-	-	-	-
에스토니아	-	-	-	-	-	-
핀란드	58.0	66.2	50.0 (2012)	67.6	71.9	63.2 (2017)
프랑스	-	-	-	-	-	-
독일	60.0	67.1	52.9 (2012)	-	-	-
그리스	-	-	-	-	-	-
헝가리	-	-	-	-	-	-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	-	-	62.0	70.0	54.0 (2017)
이스라엘	-	-	-	-	-	-
이탈리아	-	-	-	-	-	-
일본	24.1	28.6	20.3	26.7	32.2	21.9
한국	31.5	36.5	26.4	34.3	41.1	27.4
라트비아	-	-	-	58.7	58.5	59.0
리투아니아	-	-	-	-	-	-
룩셈부르크	58.1	66.3	48.1	-	-	-
멕시코	71.3	69.4	73.0 (2012)	75.2	73.0	76.8
네덜란드	64.8	68.5	61.4	-	-	-
뉴질랜드	-	-	-	66.8	70.4	63.3
노르웨이	-	-	-	-	-	-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	-	-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	-	-
스위스	-	-	-	-	-	-
터키	55.4	52.7	58.0 (2011)	64.4	62.8	66.0 (2017)
영국	62.1	67.1	57.2	63.3	66.9	59.7
미국	68.6	71.3	66.1 (2012)	71.0	74.1	67.9 (2016)
평균¹⁾	56.5	61.0	51.9	60.3	63.6	57.0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은 12개국, 2018년은 14개국의 평균임

[그림 7-1] 측정된 과제중 또는 비만을(전체), 2018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14개국의 평균임
2. 칠레, 미국은 2016년,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터키는 2017년 수치임

[그림 7-2] 성별 측정된 과제중 또는 비만을, 2018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14개국의 평균임
2. 칠레, 미국은 2016년,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터키는 2017년 수치임



OECD Health Statistics 2020

제3장

보건의료자원

- 8. 총 병원 병상 수
- 9. 급성기 병원 병상 수
- 10. 임상 의사 수
- 11. 임상 간호인력 수
- 12.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
- 13.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
- 14. 의학계열 졸업자 수



보건의료자원

8. 총 병원 병상 수

- 총 병원 병상 수(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평균(4.5개)의 2.8배임
 - 2013년 10.9개에서 2018년 12.4개로 1.5개 증가함 (OECD 평균 0.2개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총 병원 병상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1.0개)이고,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13.0개)임

〈표 8〉 총 병원 병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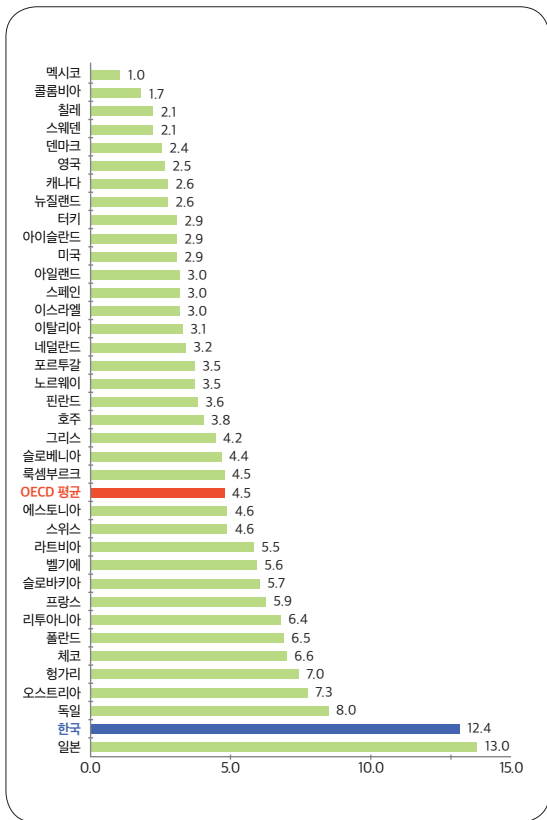
(단위: 개/인구 1,000명)

	2013	2018
호주	3.7	3.8 (2016)
오스트리아	7.6	7.3
벨기에	5.9	5.6
캐나다	2.7	2.6
칠레	2.2	2.1
콜롬비아	1.5	1.7
체코	6.7	6.6
덴마크	3.1	2.4
에스토니아	5.0	4.6
핀란드	4.9	3.6
프랑스	6.3	5.9
독일	8.3	8.0 (2017)
그리스	4.2	4.2
헝가리	7.0	7.0
아이슬란드	3.2	2.9
아일랜드	2.6	3.0
이스라엘	3.1	3.0
이탈리아	3.3	3.1
일본	13.3	13.0
한국	10.9	12.4
라트비아	5.8	5.5
리투아니아	7.3	6.4
룩셈부르크	5.2	4.5
멕시코	1.0	1.0
네덜란드	3.8	3.2
뉴질랜드	2.8	2.6
노르웨이	3.9	3.5
폴란드	6.6	6.5
포르투갈	3.4	3.5
슬로바키아	5.8	5.7
슬로베니아	4.6	4.6
스페인	3.0	3.0
스웨덴	2.6	2.1
스위스	4.9	4.6
터키	2.7	2.9
영국	2.8	2.5
미국	2.9	2.9 (2017)
평균 ¹⁾	4.7	4.5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과 2018년 모두 37개국의 평균임

[그림 8] 총 병원 병상 수, 2018년

(단위: 개/인구 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이전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7개국의 평균임

2. 호주는 2016년, 독일, 미국은 2017년 수치임

9. 급성기 병원 병상 수

- 급성기 병원 병상 수(급성기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1개로 OECD 평균(3.6개)의 2.0배임
 - 2013년 7.1개에서 2018년 7.1개로 변화 없음(OECD 평균 0.2개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근 5년간 급성기 병원 병상 수가 늘어난 국가는 그리스(3.5개 → 3.6개), 아일랜드(2.4개 → 2.8개), 스페인(2.4개 → 2.5개), 터키(2.6개 → 2.8개)뿐임
 - 급성기 병원 병상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칠레(2.0개)이고,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7.8개)임

〈표 9〉 급성기 병원 병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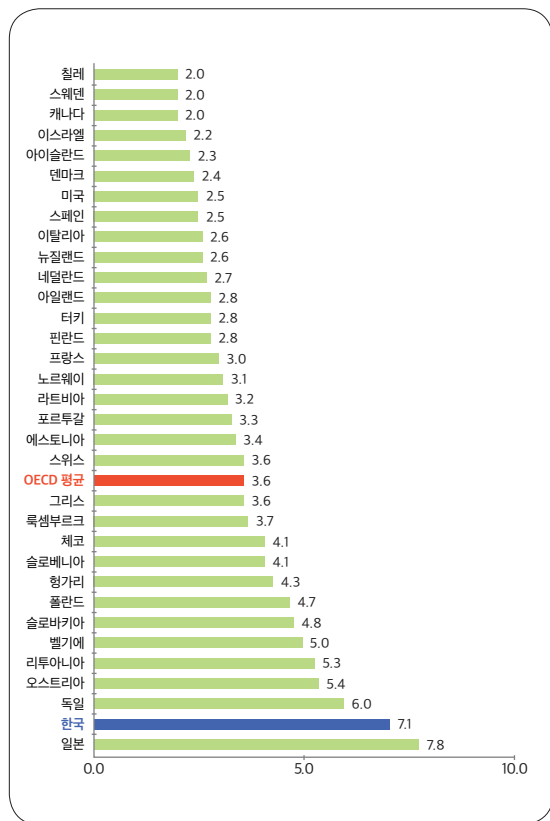
(단위: 개/인구 1,000명)

	2013	2018
호주	-	-
오스트리아	5.9	5.4
벨기에	5.2	5.0
캐나다	2.1	2.0
칠레	2.0	2.0
콜롬비아	-	-
체코	4.2	4.1
덴마크	3.0	2.4
에스토니아	3.7	3.4
핀란드	3.1	2.8
프랑스	3.3	3.0
독일	6.2	6.0 (2017)
그리스	3.5	3.6
헝가리	4.3	4.3
아이슬란드	2.7	2.3
아일랜드	2.4	2.8
이스라엘	2.3	2.2
이탈리아	2.8	2.6
일본	8.0	7.8
한국	7.1	7.1
라트비아	3.5	3.2
리투아니아	6.2	5.3
룩셈부르크	4.2	3.7
멕시코	-	-
네덜란드	2.7	2.7
뉴질랜드	2.8	2.6
노르웨이	3.5	3.1
폴란드	4.9	4.7
포르투갈	3.3	3.3
슬로바키아	4.9	4.8
슬로베니아	4.3	4.1
스페인	2.4	2.5
스웨덴	2.4	2.0
스위스	3.8	3.6
터키	2.6	2.8
영국	-	-
미국	2.5	2.5 (2017)
평균 ¹⁾	3.8	3.6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과 2018년 모두 33개국의 평균임

[그림 9] 급성기 병원 병상 수, 2018년

(단위: 개/인구 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3개국의 평균임
2. 독일, 미국은 2017년 수치임

10. 임상 의사 수

- 임상 의사 수(한 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적음(OECD 평균 3.5명)
 - 2013년 인구 1,000명당 2.2명에서 2018년 2.4명으로 0.2명 증가함(OECD 평균 0.3명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근 5년간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아일랜드(0.6명)와 슬로베니아(0.6명)임
 -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 당 5.2명임

〈표 10〉 임상 의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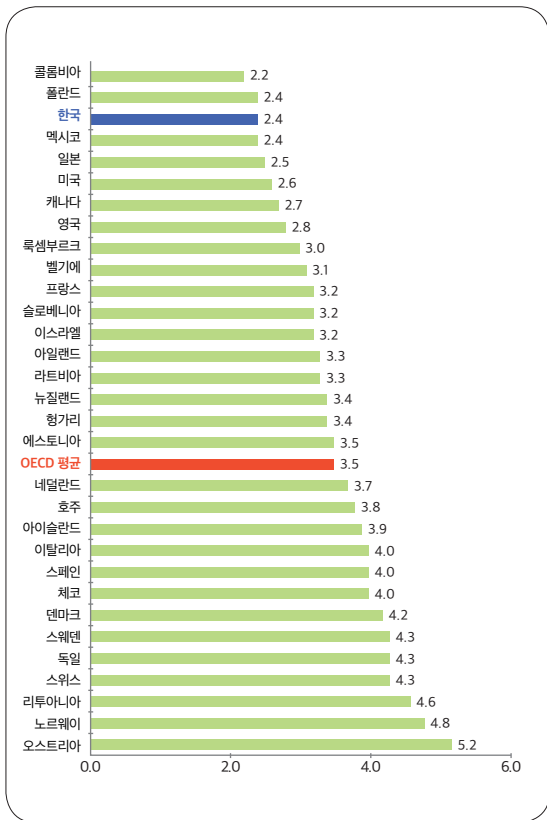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명)

	2013	2018
호주	3.4	3.8
오스트리아	5.0	5.2
벨기에	3.0	3.1
캐나다	2.5	2.7
칠레	-	-
콜롬비아	1.8	2.2
체코	3.7	4.0
덴마크	3.9	4.2
에스토니아	3.3	3.5
핀란드	3.2	-
프랑스	3.1	3.2
독일	4.0	4.3
그리스	-	-
헝가리	3.2	3.4
아일랜드	3.6	3.9
아일랜드	2.7	3.3
이스라엘	2.9	3.2
이탈리아	3.9	4.0
일본	2.3 (2012)	2.5
한국	2.2	2.4
라트비아	3.2	3.3
리투아니아	4.3	4.6
룩셈부르크	2.8	3.0 (2017)
멕시코	2.2	2.4
네덜란드	-	3.7
뉴질랜드	2.8	3.4
노르웨이	4.3	4.8
폴란드	2.2	2.4 (2017)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2.6	3.2
스페인	3.8	4.0
스웨덴	4.0	4.3 (2017)
스위스	4.0	4.3
터키	-	-
영국	2.7	2.8
미국	2.6	2.6
평균¹⁾	3.2	3.5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 2018년은 31개국의 평균임

[그림 10] 임상 의사 수, 2018년

(단위: 명/인구 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1개국의 평균임

2.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웨덴은 2017년 수치임

11. 임상 간호인력 수

- 임상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8.9명)보다 적음
 - 2013년 인구 1,000명당 5.2명에서 2018년 7.2명으로 2.0명 증가함(OECD 평균 0.4명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임상 간호인력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7.7명)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콜롬비아(1.3명)임

[표 11] 임상 간호인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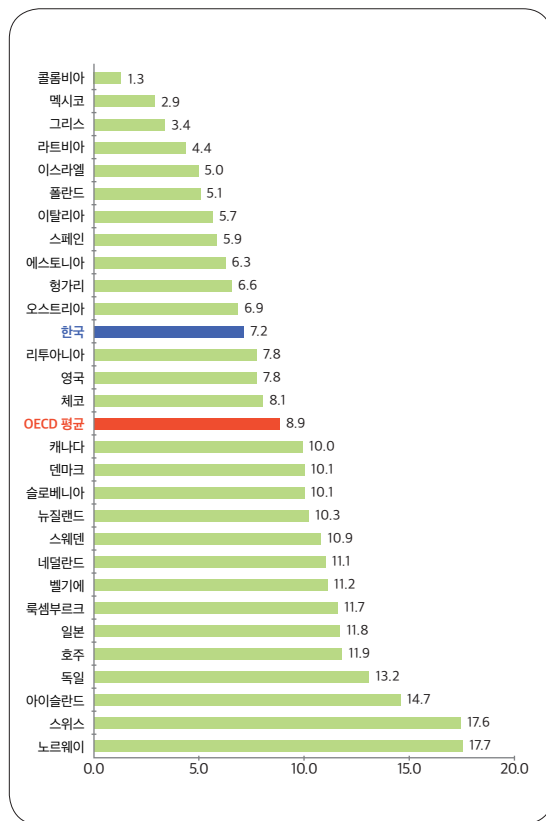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명)

	2013	2018
호주	11.1	11.9
오스트리아	6.7	6.9
벨기에	10.3	11.2 (2017)
캐나다	9.5	10.0
칠레	-	-
콜롬비아	1.0	1.3
체코	8.0	8.1
덴마크	10.0	10.1
에스토니아	5.6	6.3
핀란드	14.2	-
프랑스	-	-
독일	12.3	13.2
그리스	3.3	3.4
헝가리	6.4	6.6
아이슬란드	15.5	14.7
아일랜드	-	-
이스라엘	4.9	5.0
이탈리아	5.1	5.7
일본	10.5 (2012)	11.8
한국	5.2	7.2
라트비아	4.9	4.4
리투아니아	7.6	7.8
룩셈부르크	11.9	11.7 (2017)
멕시코	2.6	2.9
네덜란드	-	11.1
뉴질랜드	10.1	10.3
노르웨이	16.7	17.7
폴란드	5.3	5.1 (2017)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8.3	10.1
스페인	5.1	5.9
스웨덴	10.9	10.9 (2017)
스위스	15.9	17.6
터키	-	-
영국	7.9	7.8
미국	-	-
평균 ¹⁾	8.5	8.9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과 2018년 모두 29개국의 평균임

[그림 11] 임상 간호인력 수, 2018년

(단위: 명/인구 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29개국의 평균임

2. 벨기에,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웨덴은 2017년 수치임

12.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

- CT(Computerized 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 스캐너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8.6대로 OECD 평균(27.4대)보다 많음
- CT 스캐너는 2013년 인구 100만 명당 37.5대에서 2018년 38.6대로 1.1대 증가함(OECD 평균 2.8대 증가)
- CT 스캐너 보유 현황은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OECD 회원국 중에서 CT 스캐너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인구 100만 명당 111.5대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호주(67.3대), 아이슬란드(48.2대), 미국(44.6대), 그리스(40.6대), 스위스(39.7대), 덴마크(39.7대)에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8번째로 CT 스캐너를 많이 보유함
 - 콜롬비아(1.3대), 멕시코(5.9대), 헝가리(9.4대), 이스라엘(9.6대)은 인구 100만 명당 10대 미만에 그침

〈표 12〉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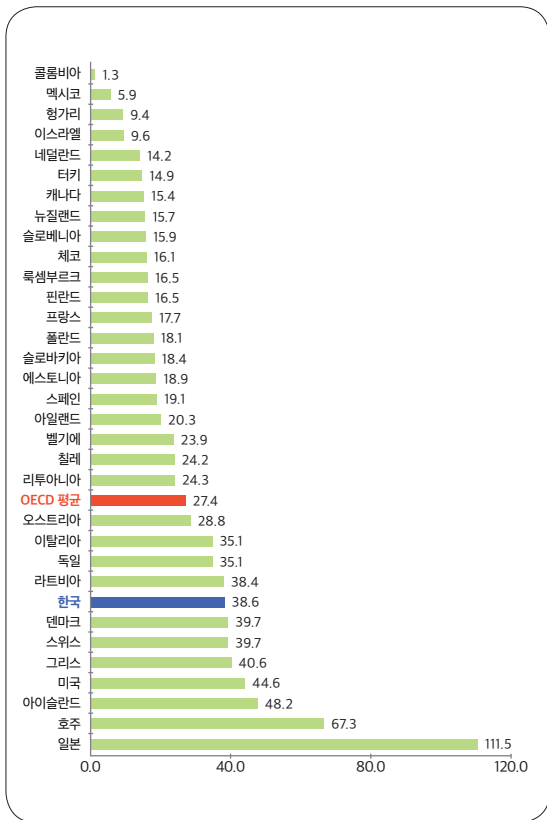
(단위: 대/인구 1,000,000명)

	2013	2018
호주	53.7	67.3
오스트리아	29.6	28.8
벨기에	22.9	23.9
캐나다	14.8	15.4 (2017)
칠레	12.3	24.2 (2017)
콜롬비아	1.0	1.3
체코	15.0	16.1
덴마크	37.8	39.7
에스토니아	19.0	18.9
핀란드	21.7	16.5
프랑스	14.5	17.7
독일	33.7	35.1 (2017)
그리스	33.7	40.6
헝가리	7.9	9.4
아이슬란드	40.2	48.2
아일랜드	17.7	20.3
이스라엘	8.9	9.6
이탈리아	33.1	35.1
일본	101.3 (2011)	111.5 (2017)
한국	37.5	38.6
라트비아	34.8	38.4
리투아니아	23.7	24.3
룩셈부르크	22.1	16.5
멕시코	5.3	5.9
네덜란드	11.5	14.2
뉴질랜드	16.7	15.7
노르웨이	-	-
폴란드	17.1	18.1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15.3	18.4
슬로베니아	12.1	15.9
스페인	17.6	19.1
스웨덴	-	-
스위스	36.6	39.7
터키	13.9	14.9
영국	9.3	-
미국	43.5	44.6
평균¹⁾	24.6	27.4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은 34개국, 2018년은 33개국의 평균임

[그림 12]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 2018년

(단위: 대/인구 1,0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3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 칠레, 독일, 일본은 2017년 수치임

13.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

-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장비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0.1대로 OECD 평균 (17.0대)보다 많음
- MRI 장비는 2013년 인구 100만 명당 24.4대에서 2018년 30.1대로 5.7대 증가함(OECD 평균 3.0대 증가)
- MRI 장비 보유 현황은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일본은 OECD 회원국 중에서 MRI 장비가 가장 많은 국가로 인구 100만 명당 55.2대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미국 (39.2대), 독일(34.7대)에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로 MRI 장비를 많이 보유함
 - 콜롬비아(0.2대), 멕시코(2.7대), 헝가리(4.9대), 이스라엘 (5.2대), 폴란드(9.2대), 슬로바키아(9.6대)는 인구 100만 명당 10대 미만에 그침

〈표 13〉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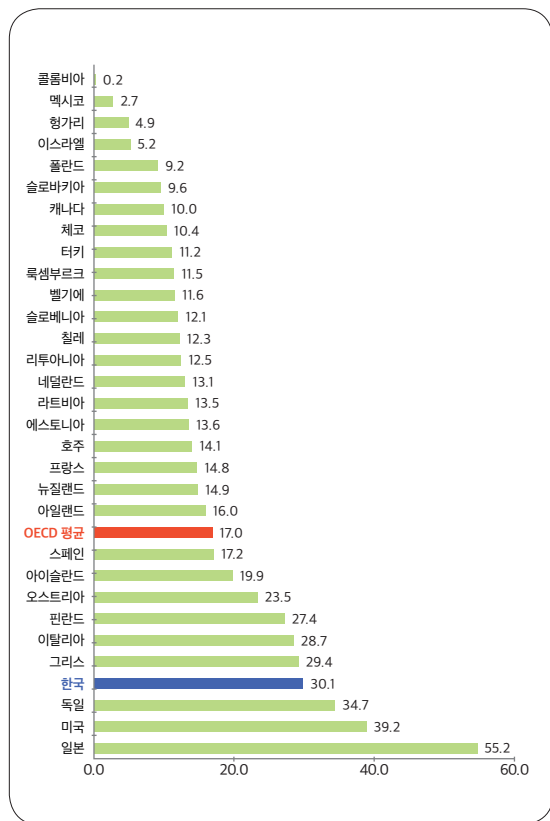
(단위: 대/인구 1,000,000명)

	2013	2018
호주	13.8	14.1
오스트리아	19.2	23.5
벨기에	10.8	11.6
캐나다	8.9	10.0 (2017)
칠레	6.6	12.3 (2017)
콜롬비아	0.2	0.2
체코	7.4	10.4
덴마크	-	-
에스토니아	11.4	13.6
핀란드	22.1	27.4
프랑스	9.4	14.8
독일	28.9	34.7 (2017)
그리스	22.1	29.4
헝가리	3.0	4.9
아이슬란드	21.6	19.9
아일랜드	13.2	16.0
이스라엘	3.5	5.2
이탈리아	25.2	28.7
일본	46.9 (2011)	55.2 (2017)
한국	24.4	30.1
라트비아	10.4	13.5
리투아니아	10.5	12.5
룩셈부르크	12.9	11.5
멕시코	2.1	2.7
네덜란드	11.5	13.1
뉴질랜드	11.3	14.9
노르웨이	-	-
폴란드	6.8	9.2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6.7	9.6
슬로베니아	9.2	12.1
스페인	15.3	17.2
스웨덴	-	-
스위스	-	-
터키	9.9	11.2
영국	7.2	-
미국	35.5	39.2
평균 ¹⁾	14.0	17.0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은 32개국, 2018년은 31개국의 평균임

[그림 13]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 2018년

(단위: 대/인구 1,0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1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 칠레, 독일, 일본은 2017년 수치임

14. 의학계열 졸업자 수

- 의학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5명으로 OECD 평균(13.9명)보다 적음
- 의학계열 졸업자는 2013년 인구 10만 명당 7.7명에서 2018년 7.5명으로 0.2명 감소함(OECD 평균 3.0명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의학계열 졸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벨기에(28.7명)임
 - 아일랜드(25.2명)는 의학계열 졸업자가 많이 배출되기도 하지만 많은 졸업생이 다른 국가로 이민을 하고 있음*
 - * RCSI health workforce research group, 「The Doctor Emigration Project」 (<http://www.healthworkforceireland.com/>)
 - OECD의 'Definitions, Sources and Methods'에 따르면 룩셈부르크는 의과대학이 없어서 의학계열 졸업자가 없고, 의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 인력은 주로 해외에서 졸업장(자격증)을 취득해 옴

〈표 14〉 의학계열 졸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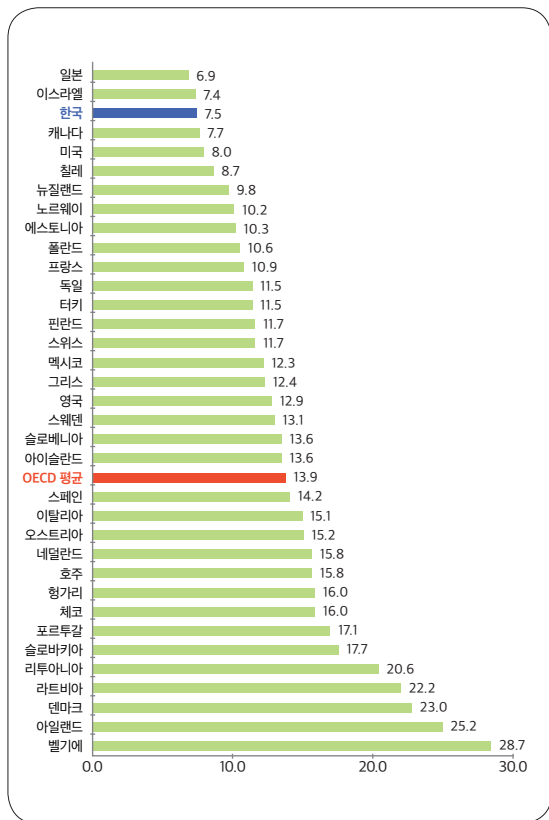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3	2018
호주	15.5	15.8
오스트리아	13.8	15.2
벨기에	10.5	28.7
캐나다	7.6	7.7
칠레	7.4	8.7
콜롬비아	-	-
체코	12.7	16.0
덴마크	15.1	23.0
에스토니아	9.7	10.3
핀란드	11.5	11.7
프랑스	7.7	10.9 (2017)
독일	12.2	11.5
그리스	9.3	12.4 (2017)
헝가리	14.2	16.0
아이슬란드	12.4	13.6
아일랜드	20.1	25.2
이스라엘	5.1	7.4
이탈리아	11.1	15.1 (2017)
일본	6.0	6.9
한국	7.7	7.5
라트비아	13.5	22.2
리투아니아	14.8	20.6
룩셈부르크	-	-
멕시코	10.2	12.3
네덜란드	14.4	15.8
뉴질랜드	8.5	9.8
노르웨이	11.4	10.2
폴란드	9.9	10.6
포르투갈	13.6	17.1
슬로바키아	15.9	17.7
슬로베니아	11.9	13.6
스페인	10.2	14.2
스웨덴	10.3	13.1
스위스	9.7	11.7
터키	6.8	11.5
영국	13.2	12.9
미국	7.3	8.0
평균¹⁾	10.9	13.9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 2018년 모두 35개국의 평균임

[그림 14] 의학계열 졸업자 수, 2018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는 2017년 수치임



OECD Health Statistics 2020

제IV장

보건의료이용

15.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16.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 진료 횟수
17.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
18.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
19. 제왕절개 건수
20.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

IV

보건의료이용

15.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6.9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음 (OECD 평균 6.8회)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2013년 14.6회에서 2018년 16.9회로 2.3회 증가함(OECD 평균 0.3회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10회를 넘어가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헝가리(10.7회), 슬로바키아(10.9회), 일본(12.6회, 2017년)이 있음
 - 콜롬비아(1.9회), 스웨덴(2.7회), 멕시코(2.8회)는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3회 미만임

〈표 15〉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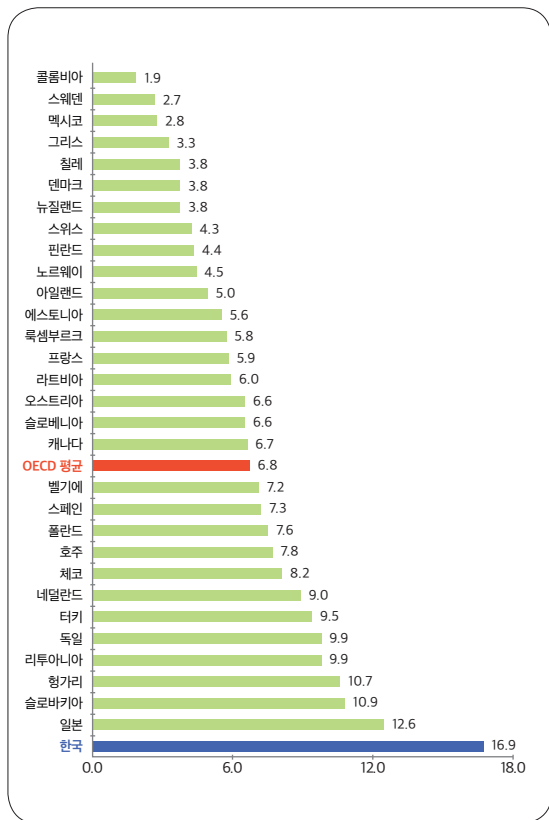
(단위: 회)

	2013	2018
호주	7.1	7.8
오스트리아	6.8	6.6
벨기에	6.7	7.2
캐나다	6.9	6.7
칠레	3.5	3.8 (2017)
콜롬비아	1.7	1.9 (2017)
체코	7.4	8.2
덴마크	4.6	3.8
에스토니아	6.4	5.6
핀란드	4.2	4.4
프랑스	6.4	5.9 (2017)
독일	9.9	9.9
그리스	-	3.3
헝가리	11.1	10.7
아이슬란드	6.0	-
아일랜드	-	5.0
이스라엘	-	-
이탈리아	6.8	-
일본	12.8	12.6 (2017)
한국	14.6	16.9
라트비아	6.2	6.0
리투아니아	8.1	9.9
룩셈부르크	5.9	5.8
멕시코	2.8	2.8
네덜란드	6.2	9.0
뉴질랜드	3.7 (2012)	3.8 (2017)
노르웨이	4.2	4.5
폴란드	7.1	7.6
포르투갈	4.1 (2012)	-
슬로바키아	11.0	10.9
슬로베니아	6.5	6.6
스페인	7.4 (2011)	7.3 (2017)
스웨덴	2.9	2.7
스위스	3.9 (2012)	4.3 (2017)
터키	8.2	9.5
영국	-	-
미국	4.0 (2011)	-
평균¹⁾	6.5	6.8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은 33개국, 2018년은 31개국의 평균임

[그림 15]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2018년

(단위: 회)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1개국의 평균임

2. 칠레, 콜롬비아,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는 2017년 수치임

16.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 진료 횟수

-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5회로 OECD 평균(1.2회)보다 많음
-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2013년 1.9회에서 2018년 1.5회로 0.4회 감소함(OECD 평균 변화 없음)
- OECD 회원국에서 치과 의사 외래 진료는 일반 의사 외래 진료만큼 빈번하지 않지만, 네덜란드(2.8회)와 일본(3.2회, 2017년)은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 많은 편임

[표 16]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 진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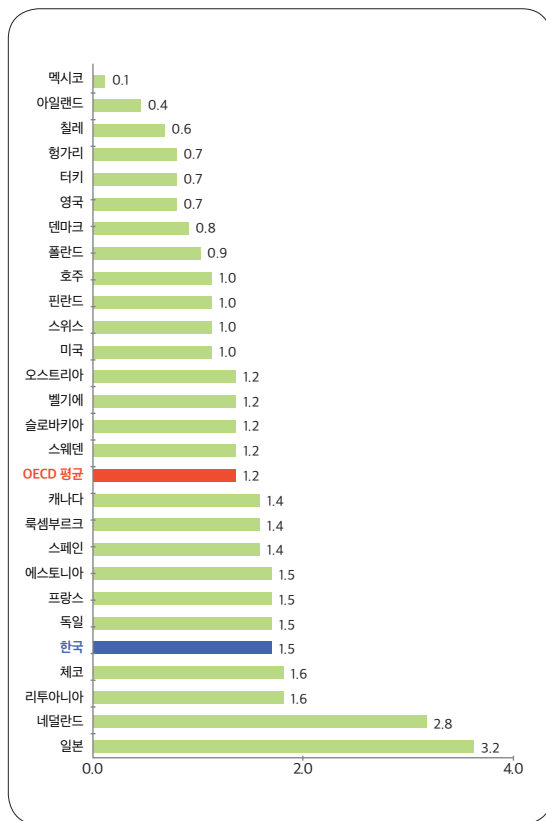
(단위: 회)

	2013	2018
호주	-	1.0
오스트리아	1.2	1.2
벨기에	-	1.2
캐나다	1.3	1.4
칠레	0.6	0.6 (2017)
콜롬비아	-	-
체코	1.5	1.6
덴마크	0.7	0.8
에스토니아	1.4	1.5
핀란드	1.1	1.0
프랑스	1.7	1.5 (2016)
독일	1.5	1.5
그리스	-	-
헝가리	0.7	0.7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	0.4
이스라엘	-	-
이탈리아	0.5	-
일본	3.2	3.2 (2017)
한국	1.9	1.5
라트비아	-	-
리투아니아	1.3	1.6
룩셈부르크	1.4	1.4
멕시코	0.2	0.1
네덜란드	2.2	2.8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
폴란드	0.9	0.9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1.2	1.2
슬로베니아	-	-
스페인	1.2 (2011)	1.4 (2017)
스웨덴	1.3	1.2
스위스	1.1 (2012)	1.0 (2017)
터키	0.5	0.7
영국	0.7	0.7
미국	1.0	1.0 (2017)
평균 ¹⁾	1.2	1.2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은 25개국, 2018년은 27개국의 평균임

[그림 16]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 진료 횟수, 2018년

(단위: 회)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27개국의 평균임
2. 프랑스는 2016년, 칠레, 일본, 스페인, 스위스, 미국은 2017년 수치임

17.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

-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는 19.1일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길 (OECD 평균 8.1일)
-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는 2013년 16.5일에서 2018년 19.1일로 2.6일 증가함(OECD 평균 0.1일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가 가장 긴 국가는 일본(27.8일)이고, 가장 짧은 국가는 멕시코(3.8일)임

〈표 17〉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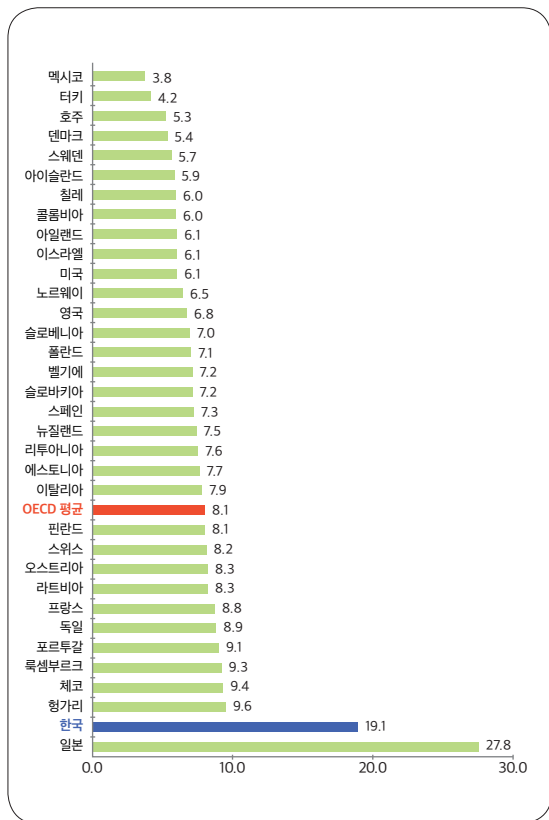
(단위: 일)

	2013	2018	
호주	5.5	5.3	(2017)
오스트리아	8.1	8.3	
벨기에	7.8	7.2	
캐나다	-	-	
칠레	5.8	6.0	
콜롬비아	5.5	6.0	(2017)
체코	9.4	9.4	
덴마크	5.6	5.4	
에스토니아	7.5	7.7	
핀란드	10.8	8.1	
프랑스	8.9	8.8	
독일	9.1	8.9	(2017)
그리스	7.5	-	
헝가리	9.4	9.6	
아이슬란드	5.9	5.9	
아일랜드	6.0	6.1	
이스라엘	6.3	6.1	
이탈리아	7.7	7.9	
일본	30.6	27.8	
한국	16.5	19.1	
라트비아	8.3	8.3	
리투아니아	8.0	7.6	
룩셈부르크	9.0	9.3	
멕시코	4.0	3.8	
네덜란드	-	-	
뉴질랜드	8.5	7.5	(2017)
노르웨이	6.1	6.5	
폴란드	7.0	7.1	
포르투갈	8.9	9.1	
슬로바키아	7.7	7.2	(2012)
슬로베니아	6.8	7.0	
스페인	7.6	7.3	
스웨덴	5.8	5.7	
스위스	8.6	8.2	
터키	3.9	4.2	
영국	7.2	6.8	
미국	6.1	6.1	(2017)
평균¹⁾	8.2	8.1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은 35개국, 2018년은 34개국의 평균임

[그림 17]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 2018년

(단위: 일)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호주, 콜롬비아, 독일, 뉴질랜드, 미국은 2017년 수치임

18.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

- 한편, 입원환자가 급성기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머문 평균 기간(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은 7.5일로 OECD 평균(6.5일)보다 1.0일 길
-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는 2013년 8.9일에서 2017년 7.5일로 1.4일 감소함(OECD 평균 0.1일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가 가장 긴 국가는 일본(16.1일)이고, 가장 짧은 국가는 호주(4.1일, 2017년), 터키(4.1일)임

[표 18]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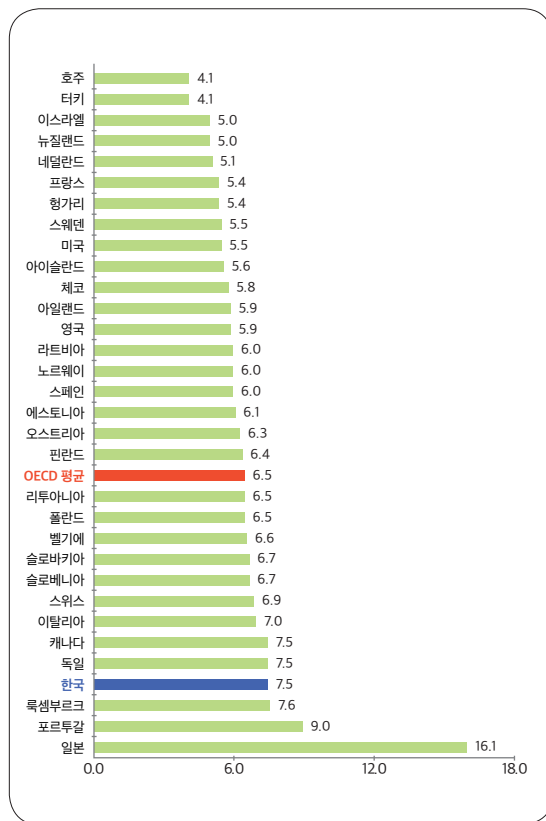
(단위: 일)

	2013	2018	
호주	4.7	4.1	(2017)
오스트리아	6.5	6.3	
벨기에	6.9	6.6	
캐나다	7.5	7.5	
칠레	-	-	
콜롬비아	-	-	
체코	6.0	5.8	
덴마크	-	-	
에스토니아	6.0	6.1	
핀란드	6.8	6.4	
프랑스	5.6	5.4	
독일	7.7	7.5	(2017)
그리스	5.6	-	
헝가리	5.7	5.4	
아이슬란드	5.6	5.6	
아일랜드	5.7	5.9	
이스라엘	5.2	5.0	
이탈리아	6.8	7.0	
일본	17.2	16.1	
한국	8.9	7.5	
라트비아	5.8	6.0	
리투아니아	6.9	6.5	
룩셈부르크	7.3	7.6	
멕시코	-	-	
네덜란드	6.7	5.1	
뉴질랜드	5.6	5.0	(2017)
노르웨이	5.5	6.0	
폴란드	6.7	6.5	
포르투갈	8.8	9.0	
슬로바키아	6.2	6.7	
슬로베니아	6.6	6.7	
스페인	6.1	6.0	
스웨덴	5.6	5.5	
스위스	7.4	6.9	
터키	3.9	4.1	
영국	6.0	5.9	
미국	5.4	5.5	(2017)
평균¹⁾	6.6	6.5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은 33개국, 2018년은 32개국의 평균임

[그림 18]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 2018년

(단위: 일)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2개국의 평균임

2. 호주, 독일, 뉴질랜드, 미국은 2017년 수치임

19. 제왕절개 건수

-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451.9건으로 OECD 평균(263.4건)의 1.7배임
- 제왕절개 건수는 2013년 367.8건에서 2018년 451.9건으로 84.1건 증가함 (OECD 평균 8.9건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터키(548.9건)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이스라엘(148.5건)임
 -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건수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표 19〉 제왕절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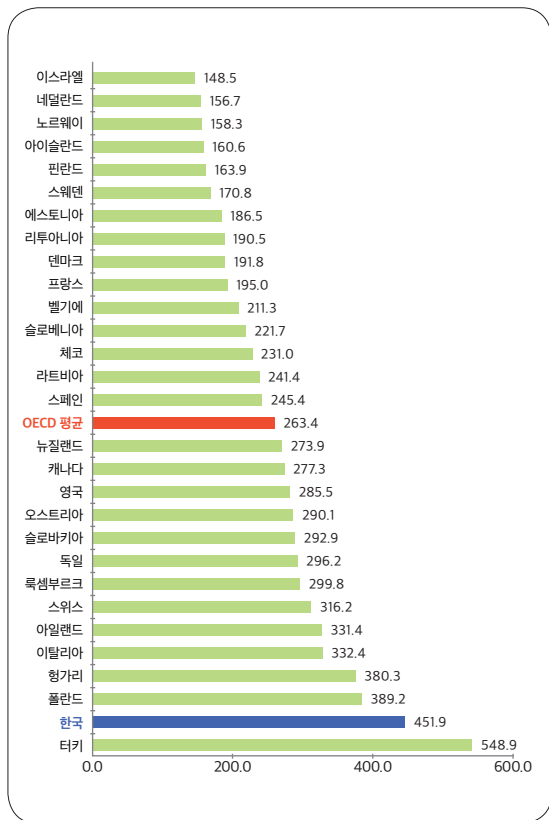
(단위: 건/출생아 1,000명)

	2013	2018
호주	-	-
오스트리아	287.8	290.1
벨기에	207.1	211.3
캐나다	263.4	277.3 (2017)
칠레	-	-
콜롬비아	-	-
체코	248.7	231.0
덴마크	223.5	191.8
에스토니아	200.8	186.5
핀란드	158.0	163.9
프랑스	199.8	195.0
독일	306.6	296.2
그리스	-	-
헝가리	349.1	380.3
아이슬란드	152.1	160.6
아일랜드	284.8	331.4
이스라엘	168.5	148.5
이탈리아	361.4	332.4
일본	-	-
한국	367.8	451.9 (2017)
라트비아	209.0	241.4
리투아니아	231.3	190.5
룩셈부르크	293.4	299.8
멕시코	-	-
네덜란드	162.4	156.7 (2017)
뉴질랜드	258.8	273.9 (2017)
노르웨이	164.6	158.3
폴란드	345.7	389.2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307.2	292.9
슬로베니아	201.9	221.7
스페인	251.6	245.4
스웨덴	166.8	170.8
스위스	-	316.2
터키	503.6	548.9
영국	250.9	285.5
미국	-	-
평균¹⁾	254.5	263.4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은 28개국, 2018년은 29개국의 평균임

[그림 19] 제왕절개 건수, 2018년

(단위: 건/출생아 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29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는 2017년 수치임

20.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

- 인구 10만 명당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는 7.9건으로 OECD 평균(35.6건)의 0.2배 수준임
-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은 2013년 6.1건에서 2018년 7.9건으로 1.8건 증가함 (OECD 평균 6.8건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관상동맥우회로 이식술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벨기에 (59.5건)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4.4건)임
 - 우리나라의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음

〈표 20〉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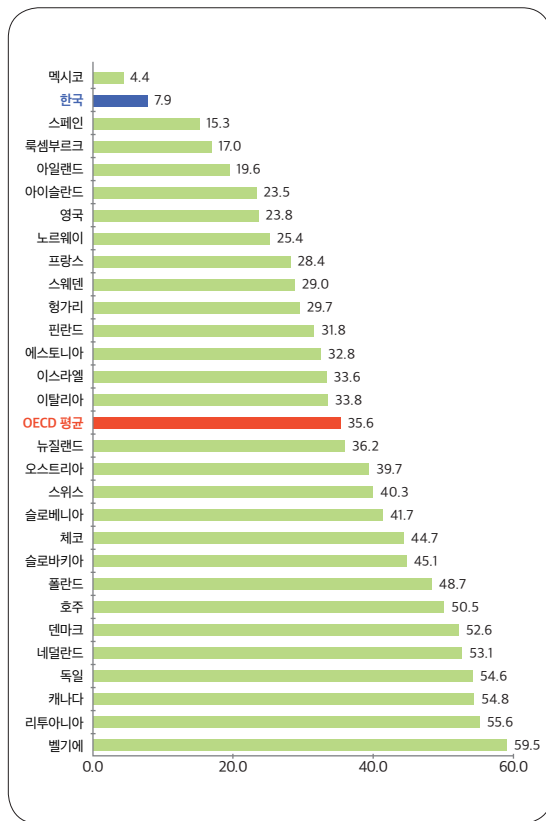
(단위: 건/인구 100,000명)

	2013	2018
호주	56.1	50.5
오스트리아	45.2	39.7
벨기에	63.9	59.5
캐나다	57.2	54.8
칠레	-	-
콜롬비아	-	-
체코	49.5	44.7
덴마크	71.9	52.6
에스토니아	39.3	32.8
핀란드	43.3	31.8
프랑스	30.0	28.4
독일	67.7	54.6
그리스	-	-
헝가리	32.1	29.7
아이슬란드	51.6	23.5
아일랜드	20.5	19.6
이스라엘	37.8	33.6
이탈리아	36.3	33.8
일본	-	-
한국	6.1	7.9
라트비아	-	-
리투아니아	59.8	55.6
룩셈부르크	44.2	17.0
멕시코	3.8	4.4
네덜란드	60.1	53.1 (2017)
뉴질랜드	41.5	36.2 (2017)
노르웨이	44.0	25.4
폴란드	58.8	48.7
포르투갈	38.1	-
슬로바키아	32.8	45.1
슬로베니아	34.5	41.7
스페인	17.8	15.3
스웨덴	32.3	29.0
스위스	-	40.3
터키	67.0 (2012)	-
영국	28.7	23.8
미국	-	-
평균 ¹⁾	42.4	35.6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은 30개국, 2018년은 29개국의 평균임

[그림 20]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 2018년

(단위: 건/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29개국의 평균임
2. 네덜란드, 뉴질랜드는 2017년 수치임



OECD Health Statistics 2020

제V장

보건의료비용

- 21.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 22.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
- 23.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 24.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보건의료비용

21.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 2018년에 우리나라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최종 소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GDP 대비 경상의료비)은 7.6%로 OECD 평균(8.8%)보다 낮음

-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10.0%를 넘는 국가는 미국(16.9%)을 비롯하여 13개국에 달함
- 한편, 터키(4.2%), 룩셈부르크(5.3%), 멕시코(5.5%), 라트비아(6.2%), 폴란드(6.3%), 리투아니아(6.6%), 에스토니아(6.7%), 슬로바키아(6.7%), 헝가리(6.7%), 아일랜드(6.9%)는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7%에 미치지 못함

-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편으로 알려져 있음

- 최근 5년간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1.4%p 증가하였음
-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0.1%p 증가하였음

〈표 21〉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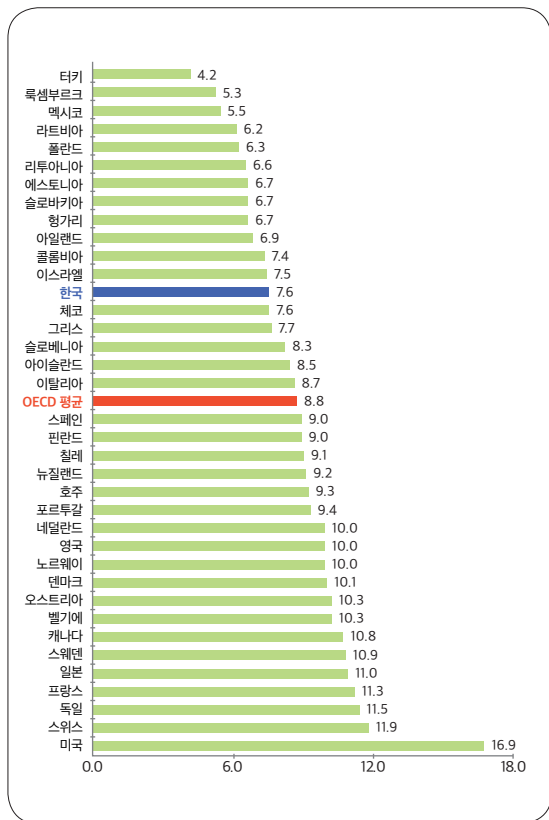
(단위: %)

	2013	2018
호주	8.8	9.3
오스트리아	10.3	10.3
벨기에	10.6	10.3
캐나다	10.3	10.8
칠레	7.4	9.1
콜롬비아	7.5	7.4
체코	7.8	7.6
덴마크	10.2	10.1
에스토니아	6.0	6.7
핀란드	9.8	9.0
프랑스	11.4	11.3
독일	11.0	11.5
그리스	8.3	7.7
헝가리	7.2	6.7
아이슬란드	8.2	8.5
아일랜드	10.3	6.9
이스라엘	7.1	7.5
이탈리아	8.8	8.7
일본	10.8	11.0
한국	6.2	7.6
라트비아	5.4	6.2
리투아니아	6.1	6.6
룩셈부르크	5.5	5.3
멕시코	5.9	5.5
네덜란드	10.6	10.0
뉴질랜드	9.4	9.2
노르웨이	8.9	10.0
폴란드	6.4	6.3
포르투갈	9.1	9.4
슬로바키아	7.5	6.7
슬로베니아	8.7	8.3
스페인	9.1	9.0
스웨덴	10.9	10.9
스위스	10.8	11.9
터키	4.4	4.2
영국	10.0	10.0
미국	16.2	16.9
평균 ¹⁾	8.7	8.8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 2018년 모두 37개국의 평균임

[그림 21]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2018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7개국의 평균임

22.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

■ 경상의료비 중에서 정부·의무가입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59.9%로 OECD 평균(73.8%)보다 낮음

-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85.3%), 스웨덴(85.1%), 미국(84.7%), 독일(84.6%), 일본(84.1%), 룩셈부르크(84.1%)임

- 한편, 멕시코(50.8%), 그리스(58.7%), 라트비아(59.9%)는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의 비중이 낮은 국가로 분류됨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왔으나,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이 아직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	59.0	60.9	60.9	60.0	59.1	59.1	58.9	58.9	59.0	59.4	59.9
OECD 평균	72.6	73.5	73.3	73.2	72.7	72.6	73.4	73.5	73.5	73.5	73.8

〈표 22〉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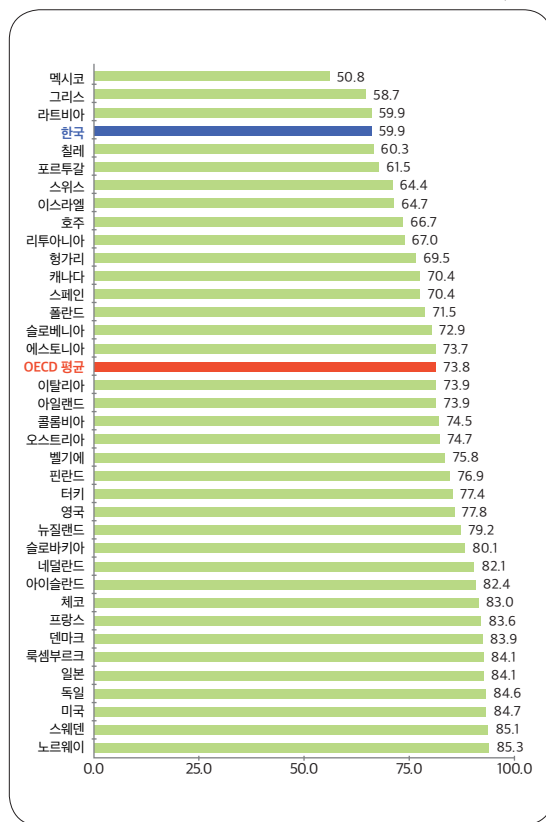
(단위: %)

	2013	2018
호주	64.8	66.7
오스트리아	74.0	74.7
벨기에	76.0	75.8
캐나다	71.2	70.4
칠레	59.4	60.3
콜롬비아	76.2	74.5
체코	83.6	83.0
덴마크	84.3	83.9
에스토니아	75.6	73.7
핀란드	77.7	76.9
프랑스	76.3	83.6
독일	83.8	84.6
그리스	61.7	58.7
헝가리	66.6	69.5
아이슬란드	80.2	82.4
아일랜드	71.2	73.9
이스라엘	63.4	64.7
이탈리아	75.8	73.9
일본	84.3	84.1
한국	59.1	59.9
라트비아	60.0	59.9
리투아니아	66.2	67.0
룩셈부르크	83.1	84.1
멕시코	52.8	50.8
네덜란드	81.1	82.1
뉴질랜드	80.1	79.2
노르웨이	85.0	85.3
폴란드	70.7	71.5
포르투갈	66.9	61.5
슬로바키아	74.2	80.1
슬로베니아	71.4	72.9
스페인	71.0	70.4
스웨덴	84.0	85.1
스위스	67.0	64.4
터키	78.4	77.4
영국	79.2	77.8
미국	48.9	84.7
평균 ¹⁾	72.6	73.8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 2018년 모두 37개국의 평균임

[그림 22]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 2018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7개국의 평균임

23.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 경상의료비 중에서 가계직접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OECD 평균(20.1%)보다 높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41.4%),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9.2%)임
- 우리나라는 멕시코, 라트비아(39.2%), 그리스(36.4%), 칠레(33.2%)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큼

■ 2013년에 34.2%였던 가계직접부담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 32.5%를 기록함

〈표 23〉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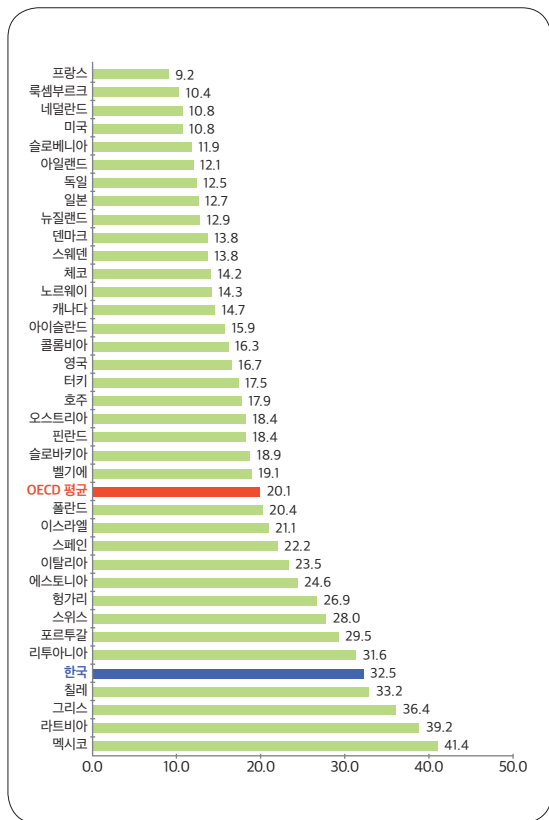
(단위: %)

	2013	2018
호주	19.7	17.9 (2017)
오스트리아	19.2	18.4
벨기에	19.7	19.1
캐나다	14.0	14.7
칠레	33.6	33.2
콜롬비아	16.1	16.3 (2017)
체코	13.6	14.2
덴마크	13.8	13.8
에스토니아	22.6	24.6
핀란드	18.0	18.4
프랑스	9.9	9.2
독일	13.2	12.5
그리스	34.1	36.4
헝가리	28.4	26.9
아이슬란드	18.3	15.9
아일랜드	14.3	12.1
이스라엘	22.7	21.1
이탈리아	22.2	23.5
일본	12.7	12.7
한국	34.2	32.5
라트비아	38.5	39.2
리투아니아	32.8	31.6
룩셈부르크	11.2	10.4
멕시코	41.3	41.4
네덜란드	11.5	10.8
뉴질랜드	12.4	12.9
노르웨이	14.6	14.3
폴란드	23.6	20.4
포르투갈	27.0	29.5
슬로바키아	23.3	18.9
슬로베니아	12.5	11.9
스페인	22.8	22.2
스웨덴	14.9	13.8
스위스	25.2	28.0
터키	16.9	17.5
영국	15.3	16.7
미국	12.0	10.8
평균 ¹⁾	20.4	20.1

주) 1.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 2018년 모두 37개국의 평균임

[그림 23]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2018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7개국의 평균임

2. 호주, 콜롬비아는 2017년 수치임

24.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 OECD 회원국 각각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1인당 의료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경상의료비는 3,085.2 US\$ PPP로 OECD 평균(3,984.3 US\$ PPP)보다 낮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10,637.1US\$ PPP)으로, OECD 평균의 2.7배에 달하는 지출을 하고 있음
 - 반면, 멕시코(1,144.9US\$ PPP), 콜롬비아(1,160.5US\$ PPP), 터키(1,223.6US\$ PPP)는 1,500.0US\$ PPP 이하의 낮은 지출을 하고 있음
- 2018년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2013년(2,128.8US\$ PPP)에 비교해서 1.4배 증가함

〈표 24〉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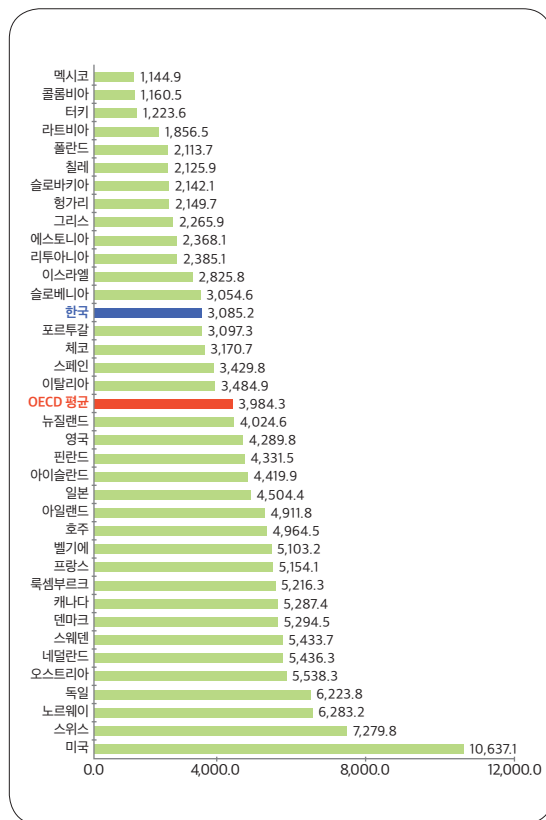
(단위: US\$ PPP¹⁾)

	2013	2018
호주	4092.6	4964.5
오스트리아	4767.1	5538.3
벨기에	4436.0	5103.2
캐나다	4397.2	5287.4
칠레	1658.1	2125.9
콜롬비아	1002.2	1160.5
체코	2448.5	3170.7
덴마크	4455.8	5294.5
에스토니아	1636.1	2368.1
핀란드	3920.8	4331.5
프랑스	4557.5	5154.1
독일	4948.7	6223.8
그리스	2067.2	2265.9
헝가리	1821.6	2149.7
아이슬란드	3497.7	4419.9
아일랜드	4302.3	4911.8
이스라엘	2238.5	2825.8
이탈리아	3042.9	3484.9
일본	4308.3	4504.4
한국	2128.8	3085.2
라트비아	1229.7	1856.5
리투아니아	1662.6	2385.1
룩셈부르크	4636.7	5216.3
멕시코	1025.3	1144.9
네덜란드	4923.9	5436.3
뉴질랜드	3388.2	4024.6
노르웨이	5485.9	6283.2
폴란드	1670.8	2113.7
포르투갈	2417.0	3097.3
슬로바키아	2153.7	2142.1
슬로베니아	2495.3	3054.6
스페인	2764.3	3429.8
스웨덴	4731.4	5433.7
스위스	5923.9	7279.8
터키	947.7	1223.6
영국	3694.5	4289.8
미국	8610.6	10637.1
평균 ²⁾	3337.5	4964.5

주) 1. PPP (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함

2.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 2018년 모두 37개국의 평균임

〈그림 24〉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2018년

(단위: US\$ PPP¹⁾)

주) 1. PPP (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함

2.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7개국의 평균임



OECD Health Statistics 2020

제VI장

의약품 시장

25. 의약품 소비량

26. 의약품 판매액

VI

의약품 시장

25. 의약품 소비량

- ATC(WHO 의약품 분류 기준) 대분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신성 항감염약 의약품 소비량이 38.7DDD, 근골격계 의약품 소비량이 73.2DDD로 OECD 평균(전신성 항감염약 20.1DDD, 근골격계 61.5DDD)보다 많음
- 세분류에 따라서는 항생제(전신성항균물질, J01) 소비량이 29.8DDD로 그리스(32.4DDD), 터키(31.0DDD)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음
- 만성질환 치료제, 항우울제 등 복합제 의약품은 집계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국가 간 비교에 주의가 필요함

〈표 25〉 의약품 소비량, 2018년

(단위: DDD¹⁾/1,000명/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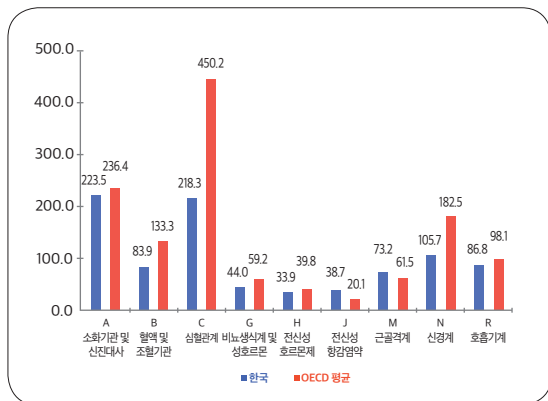
ATC 항목	항목명	한국	OECD 회원국		
			최저 ~ 최고	평균값 ²⁾	중앙값 ²⁾
A	소화기 및 신진대사	223.5	133.5 ~ 439.4	236.4	226.0
A02A	제산제	3.5	0.1 ~ 8.6	1.8	1.2
A02B	위궤양 치료제	46.8	33.6 ~ 126.8	75.1	75.5
A10	당뇨병 치료제	65.2	46.3 ~ 95.8	68.2	65.1
B	혈액 및 조혈기관	83.9	37.4 ~ 290.0	133.3	112.5
C	심혈관계	218.3	187.7 ~ 724.3	450.2	449.8
C01A	강심배당제	0.9	0.4 ~ 3.4	1.9	2.0
C01B	항부정맥약	1.4	1.1 ~ 10.3	4.2	3.1
C02	혈압강화제	1.9	1.1 ~ 33.4	8.4	6.1
C03	이뇨제	14.6	9.3 ~ 83.2	38.6	39.4
C07	베타 차단제	13.0	13.0 ~ 80.2	44.0	42.0
C08	칼슘 차단제	45.4	16.1 ~ 87.5	52.5	49.5
C09	레닌 안지오텐신억제	46.1	46.1 ~ 367.4	177.5	175.9
C10	지질완화 약물	72.4	23.7 ~ 149.0	108.6	114.8
G	비노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44.0	13.4 ~ 134.9	59.2	50.9
G03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9.7	3.8 ~ 86.9	31.0	21.7
H	전신성 호르몬제	33.9	22.2 ~ 85.2	39.8	38.3
J	전신성 항감염약	38.7	11.2 ~ 38.7	20.1	19.8
J01	전신성 항균물질	29.8	9.3 ~ 32.4	18.1	18.0
M	근골격계	73.2	28.0 ~ 97.2	61.5	62.3
M01A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49.1	9.0 ~ 77.4	40.8	40.8
N	신경계	105.7	89.1 ~ 335.5	182.5	153.0
N02	진통제	12.2	1.3 ~ 96.1	27.2	20.5
N05B	불안제거약	12.1	1.9 ~ 92.2	17.8	12.1
N05C	최면제 및 진정제	11.0	1.0 ~ 62.9	19.6	14.5
N06A	항우울제	21.0	16.1 ~ 143.7	64.3	57.3
R	호흡기계	86.8	33.4 ~ 217.2	98.1	90.4
R03	기도폐색질환약	13.2	6.8 ~ 91.4	41.9	40.8

주) 1. DDD(Defined Daily Dose)란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성인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함

2. ATC 항목별로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과 중앙값으로, 항목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통계 제출 국가는 상이함

[그림 25] 의약품 소비량, 2018년¹⁾

(단위: DDD²⁾/인구 1,000명/1일)



주) 1. ATC 항목별로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과 중앙값으로, 항목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통계 제출 국가가 상이함
2. DDD(Defined Daily Dose)란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성인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함

26. 의약품 판매액

- ATC(WHO 의약품 분류 기준) 대분류를 기준으로, 구매력지수를 적용한 우리나라 1인당 의약품 판매액(1인당 US\$ PPP 기준)은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임
- 우리나라의 의약품 판매액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 정보 및 의약품 유통정보에 기초함에 따라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판매액이 집계되기 때문임
 - OECD의 'Definitions, Sources and Methods'에 따르면 많은 국가가 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한적으로 수집함

〈표 26〉 의약품 판매액,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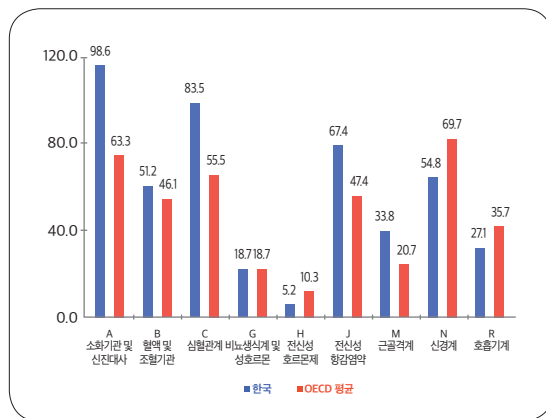
(단위: 1인당 US\$ PPP¹⁾)

ATC 항목	항목명	한국	OECD 회원국		
			최저 ~ 최고	평균값 ²⁾	중앙값 ²⁾
	총판매	642.6	91.3 ~ 759.6	499.6	524.5
A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98.6	5.1 ~ 132.3	63.3	61.2
A02A	제산제	1.6	0.1 ~ 1.9	0.8	0.8
A02B	위궤양 치료제	23.1	0.7 ~ 24.8	10.0	6.8
A10	당뇨병 치료제	24.2	2.1 ~ 68.7	30.4	26.4
B	혈액 및 조혈기관	51.2	4.0 ~ 179.2	46.1	45.5
C	심혈관계	83.5	2.9 ~ 140.2	55.5	60.4
C01A	강심배당체	-	0.1 ~ 0.4	0.2	0.1
C01B	항부정맥약	0.4	0.1 ~ 2.0	0.9	0.9
C02	혈압강하제	0.8	0.2 ~ 7.2	2.9	2.4
C03	이뇨제	0.5	0.3 ~ 7.7	3.1	3.0
C07	베타 차단제	2.9	0.2 ~ 10.5	5.8	5.7
C08	칼슘 차단제	7.4	0.3 ~ 10.6	3.6	3.4
C09	레닌 안지오텐신억제	29.0	0.9 ~ 50.0	18.7	20.0
C10	지질완화 약물	33.4	0.6 ~ 54.0	14.6	12.5
G	비노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18.7	0.8 ~ 35.2	18.7	19.1
G03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4.8	0.3 ~ 18.6	8.2	7.4
H	전신성 호르몬제	5.2	0.9 ~ 21.8	10.3	10.0
J	전신성 항감염약	67.4	9.3 ~ 112.7	47.4	48.9
J01	전신성 항균물질	29.2	1.9 ~ 36.9	13.5	10.9
M	근골격계	33.8	1.2 ~ 42.0	20.7	19.4
M01A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14.9	0.5 ~ 16.7	8.4	8.3
N	신경계	54.8	3.7 ~ 124.9	69.7	69.2
N02	진통제	9.3	0.8 ~ 28.7	15.4	14.2
N05B	불안제거약	1.3	0.1 ~ 8.5	2.6	2.1
N05C	최면제 및 진정제	1.1	0.0 ~ 11.9	3.1	2.6
N06A	항우울제	4.8	0.3 ~ 28.9	9.8	9.3
R	호흡기계	27.1	2.2 ~ 68.9	35.7	34.7
R03	기도폐색질환약	7.8	1.7 ~ 45.9	21.7	22.5
	기타 ³⁾	202.3	0.0 ~ 295.0	163.0	178.0

주) 1. PPP (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함

2. ATC 항목별로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과 중앙값으로, 항목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통계 제출 국가는 상이함

3. 기타에는 모든 ATC의 투약조제료가 포함되어 있음

[그림 26] 의약품 판매액, 2018년¹⁾(단위: 1인당 US\$ PPP²⁾)

주) 1. ATC 항목별로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항목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통계 제출 국가는 상이함

2. PPP (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함



OECD Health Statistics 2020

제11장

장기요양

27.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28.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VII

장기요양

27.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상과 침상(병원의 병상과 시설의 침상을 모두 집계)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60.9개로 OECD 평균(46.9개)보다 많음
- 장기요양 병원 병상 및 침상은 2013년 55.2개에서 2018년 60.9개로 5.7개 증가함 (OECD 평균 2.3개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수 가장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81.9개)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그리스(4.2개)임
 - 우리나라와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시설의 침상이 병원의 병상보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27〉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단위: 개/65세 이상 인구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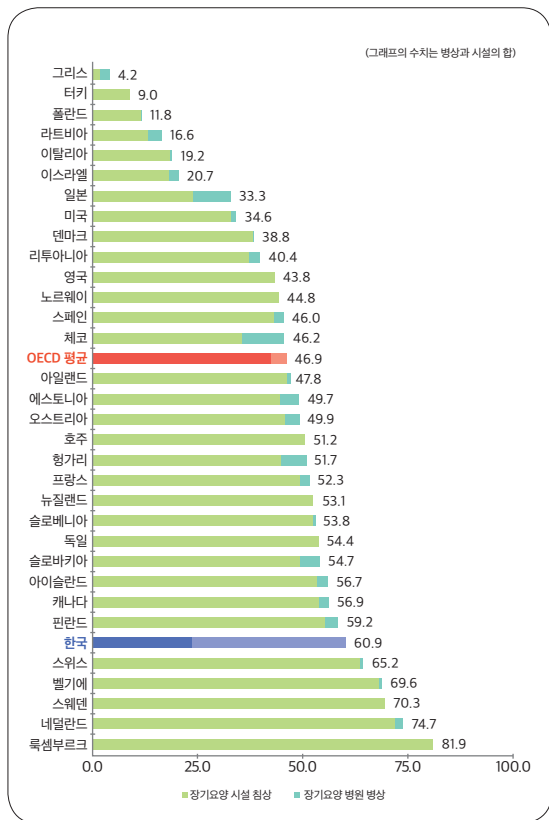
	2013			2018		
	전체 ¹⁾	병원병상	시설침상	전체 ¹⁾	병원병상	시설침상
호주	54.1	-	54.1	51.2	-	51.2
오스트리아	46.3	3.1	43.2	49.9	3.5	46.4
벨기에	70.2	0.9	69.3	69.6	0.6	69.0
캐나다	53.4	3.3	50.1	56.9	2.5	54.4
칠레	0.1	0.1	-	-	-	-
콜롬비아	-	-	-	-	-	-
체코	49.9	11.4	38.5	46.2	10.2	36.0
덴마크	49.8	0.2	49.6	38.8	0.2	38.6
에스토니아	48.9	5.3	43.6	49.7	4.6	45.1
핀란드	69.3	8.8	60.5	59.2	3.2	56.0
프랑스	57.9	2.8	55.1	52.3	2.4	49.9
독일	54.0	-	54.0	54.4	-	54.4 (2017)
그리스	1.9	-	1.9	4.2	2.4	1.8
헝가리	56.0	7.1	48.9	51.7	6.4	45.3
아이슬란드	62.8	2.7	60.1	56.7	2.6	54.1
아일랜드	50.5	1.2	49.3	47.8	1.1	46.7
이스라엘	25.3	2.6	22.7	20.7	2.4	18.3
이탈리아	19.3	0.8	18.5	19.2	0.6	18.6
일본	35.1	10.7	24.4	33.3	9.2	24.1 (2017)
한국	55.2	32.0	23.2	60.9	36.9	24.0
라트비아	23.4	3.4	20.0	16.6	3.3	13.3
리투아니아	37.7	2.9	34.8	40.4	2.7	37.7
룩셈부르크	56.6	-	56.6	81.9	-	81.9
멕시코	-	-	-	-	-	-
네덜란드	87.4	2.7	84.7	74.7	1.9	72.8
뉴질랜드	58.9	-	58.9	53.1	0.1	53.0
노르웨이	52.4	-	52.4	44.8	-	44.8
폴란드	12.6	0.1	12.5	11.8	0.2	11.6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56.3	5.7	50.6	54.7	4.8	49.9
슬로베니아	59.0	0.9	58.1	53.8	0.7	53.1
스페인	47.7	2.8	44.9	46.0	2.3	43.7
스웨덴	69.6	-	69.6	70.3	-	70.3
스위스	68.6	1.0	67.6	65.2	0.9	64.3
터키	8.0	-	8.0	9.0	-	9.0
영국	50.0	-	50.0	43.8	-	43.8
미국	38.4	1.4	37.0	34.6	1.2	33.4 (2016)
평균²⁾	49.2	4.6	44.6	46.9	4.0	42.9

주) 1. 전체는 병원 병상수와 시설 침상 수의 합임

2. 2013년과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3년 2018년 모두 33개국의 평균임

[그림 27]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2018년

(단위: 개/65세 이상 인구 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3개국의 평균임

2 장기요양병원 병상 수의 미국은 2017년 수치임

3 장기요양시설 침상 수의 미국은 2016년, 독일, 일본은 2017년 수치임

28.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모두 받는 사람은 양쪽에 각각 집계됨

-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은 인구는 6.2%로 OECD 평균(10.1%)보다 낮으며, 시설서비스를 받은 인구도 2.7%로 OECD 평균(3.8%)보다 낮음
- 비록 OECD 국가보다 수급률이 낮지만,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모두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재가서비스 수급률은 2013년에 4.2%였지만, 최근 5년간 2.0%p 증가하였음 (OECD 평균 0.5%p 증가)
 - 시설서비스 수급률은 2013년에 2.5%였지만, 최근 5년간 0.2%p 증가하였음 (OECD 평균 0.2%p 감소)
- OECD 국가 중에서 재가서비스 수급률이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27.7%), 이스라엘(18.7%), 멕시코(17.2%), 스위스(17.1%)이고, 시설서비스 수급률이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10.6%), 호주(6.0%), 스위스(5.6%), 룩셈부르크(5.4%)임

〈표 28〉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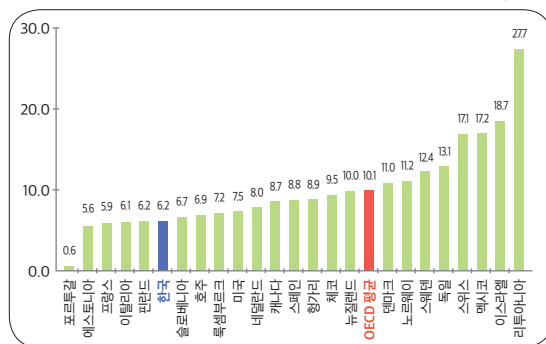
(단위: %)

	2013		2018	
	재가	시설	재가	시설
호주	8.4	6.7	6.9	6.0
오스트리아	-	-	-	-
벨기에	-	-	-	-
캐나다	-	4.0	8.7	4.0
칠레	-	-	-	-
콜롬비아	-	-	-	-
체코	-	-	9.5	2.6
덴마크	12.7	4.0	11.0	-
에스토니아	6.7	4.7	5.6	5.0
핀란드	7.1	4.7	6.2	4.5
프랑스	6.4	4.4	5.9	4.2
독일	8.6	4.1	13.1	4.1
그리스	-	-	-	-
헝가리	10.5	3.0	8.9	3.0
아이슬란드	-	-	-	-
아일랜드	-	3.7	-	3.3
이스라엘	19.6	2.1	18.7	1.6
이탈리아	4.8	-	6.1	-
일본	-	2.8	-	2.6
한국	4.2	2.5	6.2	2.7
라트비아	-	0.5	-	0.4
리투아니아	22.7	8.5	27.7	10.6
룩셈부르크	7.9	5.5	7.2	5.4
멕시코	-	-	17.2	-
네덜란드	13.4	5.6	8.0	4.2
뉴질랜드	9.9	4.8	10.0	4.3
노르웨이	11.9	4.9	11.2	4.1
폴란드	-	0.8	-	0.8
포르투갈	0.6	1.1	0.6	1.3
슬로바키아	-	3.5	-	4.2
슬로베니아	6.6	4.9	6.7	4.8
스페인	5.0	1.8	8.8	2.2
스웨덴	11.4	4.9	12.4	4.3
스위스	14.2	6.1	17.1	5.6
터키	-	-	-	-
영국	-	-	-	-
미국	-	-	7.5	2.4
평균 ¹⁾	9.6	4.0	10.1	3.8

주) 1. 인접 과거년도 통계를 대체하지 않고, 2013년과 2018년 해당 연도에 제출한 국가의 평균으로 2013년의 재가 20개국, 2013년의 시설 25개국, 2018년의 재가 24개국, 2018년 시설 26개국 평균임

〈그림 28-1〉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재가),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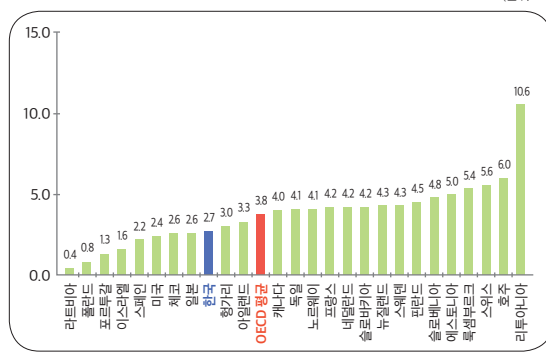
(단위: %)



주) 1. 본 지표는 인접 과거년도 통계를 대체하지 않고, 2013년과 2018년 해당 연도에 제출한 국가의 지표이며, OECD 평균은 2018년의 재가 통계를 제출한 24개국 평균임

〈그림 28-2〉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시설), 2018년

(단위: %)



주) 1. 본 지표는 인접 과거년도 통계를 대체하지 않고, 2013년과 2018년 해당 연도에 제출한 국가의 지표이며, OECD 평균은 2018년의 시설 통계를 제출한 26개국 평균임

OECD Health Statistics 2020

본 책자는 OECD Health Statistics 2020에서 주요 지표만을 발췌하여 구성·편집한 자료이며, OECD 공식 번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044)202-22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044)287-8391

- 만든 곳

경성문화사 ☎(02)786-2999